



부록

1. 2015년 규정주요일지
2. 역대 구청장 명단
3. 역대 부구청장 명단
4. 구·동주민센터 간부 명단
5. 국회의원·구·시의원명단
6. 언론에서 본 수영구

1. 2015년 규정주요일지

〈1월〉

월 일	주 요 행 사
1. 1.	을미년 새해맞이 행사 (광안리해수욕장) 신년참배 (25의용단)
1. 2.	시무식 (구민홀)
1. 9.	수영구 페이스북 개설
1. 12.	월남전 참전자회 정기총회 (화목뷔페)
1. 13.	민족통일 수영구지회 정기총회 (화목뷔페) 2014년 우수경로당 현판식 (SK뷰 경로당)
1. 14.	대한적십자부녀봉사회 정기총회 (구민홀)
1. 16.	여성단체협의회 신년하례 (화목뷔페)
1.17.~1.18.	간부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전북 부안군 일원)
1. 20.	2014 하반기 퇴임봉사 단체장 및 통장 감사패 수여 (대회의실) 6.25참전 유공자회 정기총회 (화목뷔페) 남수영구 약사회 정기총회 (아쿠아펠리스)
1. 21.	소년소녀합창단 「겨울음악캠프」 (경주월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 (화목뷔페) 남수영구 재향군인회 정기총회 (화목뷔페)
1. 22.	새마을문고회 정기총회 (대회의실) 사)한국원자력여성 수영구지회 정기총회 (중회의실)
1. 23.	새마을부녀회 정기총회 (대회의실)
1. 26.	열관리시공협회 남수영지부 정기총회 (대연동)
1. 28.	수영구 상공인회 정기총회 (아쿠아펠리스) 수영고적민속보존회 정기총회 (민속예술전수관)
1. 29.	수영구 새마을회 정기총회 (대회의실)

〈2월〉

월 일	주 요 행 사
2. 2.	구청장 동 방문 (민락동, 광안2동)
2. 3.	구청장 동 방문 (광안3동, 광안4동)
2. 4.	사회복지사협회 수영구지회 정기총회 (유토피아뷔페) 설 대비 물기안정 합동대책 회의 (대회의실)
2. 5.	구청장 동 방문 (광안1동, 망미2동) 고엽제 전우회 전적지 순례 (거제도포로수용소)
2. 6.	구청장 동 방문 (망미1동, 수영동) 수영구생활체육회 정기총회 (화목뷔페)
2. 9.	구청장 동 방문 (남천2동, 남천1동)
2. 10.	설 명절 손님맞이 도시 환경정비 (광안리해수욕장)
2. 11.	검소한 설 맞이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남천해변시장) 자기주도학습 3자 업무협약 체결 (소회의실)
2. 12.	문화예술 진흥 유공자 표창 수여식 (대회의실) 자연보호수영구협의회 정기총회 (대회의실)
2. 13.	환경미화원 정기교육 (구민홀)
2. 23.	을미년 새해맞이 지신밟기 행사 (구청사) 민주평통 정기총회 (대회의실)
2. 24.	수영구 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 (구민홀) 수영구의사회 정기총회 (호메르스호텔)
2. 25.	구민1일 명예과장 운영 (본인희망부서)
2. 26.	수영포럼 정기총회 (아쿠아펠리스)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캠페인 (수영교차로)
2. 27.	수영문화원 정기총회 (아쿠아펠리스) 2016학년도 대입준비 전략설명회 (구민홀) 제18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3월〉

월 일	주 요 행 사
3. 2.	개청20주년 기념식 (구민홀) 통합방위협의회 정기총회 (아쿠아펠리스)
3. 4.	새봄맞이 대청결 활동의 날 (광안리해수욕장) 제18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장)
3. 5.	수영고당 당산제 및 장승 제막식 (수영사적공원) 제19회 수영전통 달집놀이 (광안리해수욕장)
3. 6.	수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기총회 (푸른산장) 수영사랑회 정기총회 (중회의실)
3.10.~3.24.	노인사회 활동지원사업 발대식 (구민홀외 3개소)
3. 11.	수영구 우수납세자 시상식 (중회의실)
3. 13.	통장자녀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중회의실) 뚝딱이 재능봉사단 발대식 (대회의실)
3. 15.	수영구청장배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수영구민체육센터)
3. 16.	제397차 민방위의 날 훈련 (수영구 전역)
3. 17.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합동캠페인 (덕문여고, 광안중, 수미초) 종식봉사나눔회 수영구지부 정기총회 (유토피아호텔)
3. 19.	수영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정기총회 (유토피아호텔)
3. 20.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 정기총회 (유토피아호텔) 외식업중앙회 수영구지부 정기총회 (유토피아호텔)
3. 21.	구례 산수유 꽃축제 방문 (구례군, 3.21.~3.29.)
3. 24.	수영팔도시장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수영팔도시장)
3. 25.	대중교통중심도시 추진 민관 합동캠페인 (대남교차로, 수영교차로)
3. 26.	1/4분기 모범단체원 표창 (중회의실) 1/4분기 직장교육 (구민홀)
3. 27.	수영사랑회 1분기 큰사랑 어른신 생신잔치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보육사업지침 어린이집 원장 교육 (부산중앙교회) 환경미화원 정기교육 (구민홀)
3. 28.	제20회 갈매기 환송제 (파크호텔 앞) 문화복지 책 나눔 북 콘서트 (부산MBC삼주아트홀)
3. 30.	수영구 체육회이사회 정기총회 (중회의실)

〈4월〉

월 일	주 요 행 사
4. 3.	제9회 수영구 여성리더십 개발 워크숍 (부산여성가족개발원)
4.7.~4.9.	화랑훈련
4. 8.	제1회 수영아카데미, 김철민 향노화기술개발사업단 단장 (구민홀)
4. 9.	광안본동경로당 개소식 (광안본동경로당)
4. 13.	상반기 폭력예방 1차 통합교육 (구민홀)
4. 14.	상반기 폭력예방 2차 통합교육 (구민홀)
4.14.~4.31.	15기 자동차를 아는 여성교실 운영 (대회의실)
4. 17.	여성단체협의회 임시총회 (중회의실) 제18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4. 18.	함박웃음 나누리 4기 봉사단 발대식 (구민홀)
4. 20.	망미2동 주거지전용 주차장 시행 (망미동 253-8번지)
4. 21.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양안정비)사업[민락동측] 준공식 (민락해변공원) 최영장군 사당 연례제향 봉행 (무민사) 제15회 광안리어방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대회의실)
4. 22.	희망2015 나눔캠페인 유공자 포상식 (협성뷔페) 구민1일 명예과장 운영 (본인희망부서) 주민건강 행태개선을 위한 건강강좌 (수영구노인복지관) 제18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장)
4. 23.	노인우울증 및 치매예방 강좌 (남천교회)
4.24.~4.26.	제15회 광안리어방축제 (광안리해수욕장)
4. 25.	제4회 수영구청배 전국원드서핑대회 (광안리해수욕장)
4.27.~4.30.	수영구 문화예술회 사진회 작품전시회 (바다갤러리)
4. 27.	민락해변공원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 시행
4. 28.	수영강 동원로알뜰크 경로당 개소식 (수영강 동원로알뜰크) 보육교직원 연수회 (부산중앙교회)
4. 29.	문화가 있는 날 봄마중 음악회 (호암근린공원)

〈5월〉

월 일	주 요 행 사
5. 1.	부안마실축제 참석 (부안군, 5.1.~5.3.) 5월중 직원정례조례 (구민홀)
5.1.~5.10.	제12회 부산국제연극제 지원 (바다갤러리외 3개소)
5. 3.	수영구청장배 생활체육 궁도대회 (수영정 궁도장)
5. 4.	장한 어린이 및 다자녀 모범 가정 표창 수여 (대회의실)
5. 6.	깨끗한 도시 조성을 위한 광안리해수욕장 대청결의 날 (광안리해수욕장) 민락 해변공원 내 모바일화장실 설치 (민락해변공원)
5. 8.	어방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시상식 (대회의실)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 (부산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외 6개소) 소규모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협약체결 (중회의실)
5. 9.	해양안전 캠페인 및 카약체험장 개장 (광안리해수욕장)
5.11.~5.14.	독도사진 전시회 개최 (민원홀)
5. 12.	미용사회 수영구지회 정기총회 및 위생교육 (호메르스호텔)
5. 13.	제6회 곱슬한마음 축제 (수영구 노인복지관) 제36회 노인단체연합 체육대회 참가 지원 (구덕 실내체육관)
5. 15.	주민자치회 마을축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감천문화마을)
5. 16.	제1회 구민나눔장터(어린이 벼룩시장) (구청광장) 전통 성년식 개최 (수영사적공원) 제1회 청소년 어울림 마당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5. 18.	망미변영로 하부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대 운영 (망미2동)
5.18.~5.2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수영구 일대)
5. 19.	안전한국훈련 연계 제398차 민방위의 날 훈련 (망미초등학교) 제15회 광안리어방축제 유공자 감사패 및 표창 수여 (대회의실)
5. 21.	청소년의 달 기념 모범 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대회의실)
5. 22.	수영구 기로회관 개관 및 (사)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이전개소식 (수영구 기로회관)
5.22.~6.10.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소회의실)
5. 27.	2015년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발표회 (대회의실) 문화가 있는 날, 가족과 함께하는 뮤직 퍼포먼스 공연 (사랑쌈지공원)
5. 28.	정부3.0 직원교육 (구민홀) 수산종묘매입 방류 (민락항)
5. 29.	장수체육대학 (구민홀)
5. 30.	제2회 청소년 어울림 마당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6월〉

월 일	주 요 행 사
6.1.~6.11.	심폐소생술 체험훈련 (남부소방서)
6. 2.	중동기호흡기증후군(MERS) 대응 상황실 운영 (보건소) 노인우울증 및 치매예방 강좌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6. 3.	세계 환경의 날 기념 광안리해수욕장 대청결의 날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6. 4.	노인우울증 및 치매예방 강좌 (부산중앙교회)
6. 6.	망미동 우암사 입구 계곡부 복구 정비공사 완료
6. 8.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소양교육 (구민홀)
6.10.~6.12.	직원 청렴 워크숍 (구민홀)
6. 10.	『2015년 동부산권 채용박람회』 행사 (벡스코) 암 예방 강좌 (신부산교회)
6. 12.	제10회 부산광역시장기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 (부산종합운동장) 중요목조문화재(25의용단)화재 대비 소방합동훈련 (25의용단) 제18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수영사랑회 2분기 큰사랑 어르신 생신잔치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6. 12.	메르스 수영구 1번째 확진환자(143번 환자) 발생
6. 13.	수영구 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합창 대축제」 참여 지원 (을숙도문화회관) 제44회 수영전통민속 예술축제 (수영민속예술관 놀이마당) 메르스 관련 전직원 비상근무 발령
6. 14.	메르스 관련 좋은강안병원 출입통제
6. 18.	보건소 일부업무 한시적 운영 중단
6. 19.	제187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장)
6. 23.	광안동 산106번지 급경사지 정비공사 완료
6. 24.	메르스 2번째 확진환자 발생
6. 26.	제11대 강재만 부구청장 이임식 (구민홀)
6. 27.	메르스 관련 좋은강안병원 출입통제 해제
6. 29.	보건소 업무 정상화

〈7월〉

월 일	주 요 행 사
7. 1.	7월 직원 정례조례 (구민홀) 2/4분기 모범단체원 표창패 및 상반기 퇴임봉사단체장 감사패 수여 (구민홀) 해수욕장 개장식 (광안리해수욕장)
7. 6.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구민홀)
7. 7.	제18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7. 9.	광안리해수욕장 피서객 맞이 대청결의 날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메르스 밀접접촉자 관리대상 전원 해제
7. 10.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임시총회 (중회의실)
7. 11.	제3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7. 14.	수영포럼 체육분과 세미나 개최 (대회의실)
7. 15.	제17기 민주평통 수영구 협의회 출범식 (아쿠아펠리스) 해양레포츠 스쿨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7. 16.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봄.봄.봄” 서포터즈 발대식 (대회의실) 제188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장)
7. 17.	청소년 금연홍보단 발대식 (보건소 대회의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워크숍 (부산여성가족개발원)
7. 18.	제3차 구민나눔장터 개장 (광안리 차 없는 거리) 수영문화원 개원 6주년 기념 음악회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7.18.~7.20.	수영문화원 개원 6주년 기념 수강생 작품 전시발표회 (바다갤러리)
7. 19.	광안리해수욕장 피서객 맞이 대청결의 날 운영 (광안리해수욕장)
7. 24.	어르신민속경기대회 참가 (부산시노인복지관)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 및 다문화 이해 교육 (구민홀)
7. 25.	제4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새마을문고 어린이 독서골든벨 (수영구민체육센터)
7.27.~7.31.	주민자치회 수강생 작품전시회 (문화센터 바다갤러리)
7. 28.	미용업 영업자 위생교육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7. 29.	바르게운동 수영구협의회 여성회주간 열무김치 나눔 행사 (새마을지회 공터) 문화가 있는 날, 행복사십SHOW!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7. 30.	여름방학 그린스쿨 (구민홀) 주민자치회 수강생 발표경연대회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구민생활체육교실 수강생 공연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7. 31.	광사모 음악회 We Love Gwangalli」 지원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엄지마을 쉼터 준공 (광안1동)

〈8월〉

월 일	주 요 행 사
8. 1.	제8회 광안리해수욕장 조개잡이 체험행사 (광안리해수욕장)
	제4차 구민나눔장터(한여름 밤의 별★별 베품시장) (광안리 차 없는 거리)
	제3회 광안리 물총축제 『수타(水打)워즈』 (광안리해수욕장)
8.1.~8.8.	제20회 부산바다축제 행사지원 (광안리해수욕장)
8.3.~8.4.	구례군 초청 청소년 수련캠프 (구례군 산동청소년수련관)
8.3.~8.5.	제15회 울릉도 오징어축제 방문 (울릉도)
8. 4.	제18회 장애인한바다 축제 지원 (광안리해수욕장)
8. 6.	자연보호수영구협의회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광안리해수욕장)
8.3.~8.9.	수영구 꽃 예술회 작품전시회 (바다갤러리)
8. 8.	BNK 부산은행 민락수변공원 환경정비 (민락수변공원)
	황령산 전망쉼터 개장식 (황령산 봉수대 전망쉼터)
	제5차 구민나눔장터(한여름 밤의 별★별 베품시장) (광안리 차 없는 거리)
8.10.~8.11.	어린이 청소년 캠프 (광안리해안레포츠센터, 영도함지골청소년수련원)
8. 11.	보육시설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 (대회의실)
8. 12.	「광복70주년」 맞이 태극기 달기 운동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8. 14.	독립유공자 유족 주거환경개선 사업 준공식 (광안동)
8.14.~8.16.	제12회 광대연극제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관내 소극장)
8. 14 ~ 18.	이색가면전시회 (바다갤러리)
8. 15.	제6차 구민나눔장터(한여름 밤의 별★별 베품시장) (광안리 차 없는 거리)
8.15.~8.16.	수영 아이캠프 (순천만 일원)
8. 17.	수영사랑회 부산수영청년회의소 다문화가정 결혼식 지원 협약식 (부산수영청년회의소 사무실)
8. 17 ~ 20.	을지연습 (대회의실 등)
8. 19.	을지연습 연계 제99차 민방위의 날 훈련 (수영구 전역)
8. 21.	비만인식 개선 강연회 (수영구보건소)
8. 22.	제5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제7차 구민나눔장터(한여름 밤의 별★별 베품시장) (광안리 차 없는 거리)
8. 24.	한부모가정 자녀 문화체험행사 (김해 일원)
8. 26.	학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1일 명예과장 (본인희망부서)
	제2회 수영아카데미, 서진규 희망연구소 소장 (구민홀)
	문화가 있는 날, 청춘밴드 ZERO 공연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8. 27.	좌수영성 재창조 아카데미 개강 (수영동 엘레브센터, 8.27.~11.27.)
8. 29.	제6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만남의 광장)

〈9월〉

월 일	주 요 행 사
9. 1.	직원정례조례 (구민홀) 수영포럼 생활복지분과 세미나 (대회의실)
9. 3.	부산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송도해수욕장)
9.4.~9.5.	주5일제 생활체육 실천광장 지원 (남해 일원)
9. 8.	노인자원봉사클럽 활동의 날 (만남의 광장) 직원 청렴교육 (구민홀)
9.8.~9.9.	제17회 부산광역시장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여 (아시아드보조경기장)
9.9.~9.12.	수영로타리 상가거리 축제 (수영로타리 일원)
9. 10.	제5회 코리아오픈드래곤보트 대회 (수영강 APEC 나루공원) 암 예방 건강강좌 (현돌실버타운)
9. 11.	제18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이웃사랑 바자회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제5회 주민자치의 날 행사 (구민홀) 남천해변시장 개보수 준공식 (남천해변시장 앞)
9. 14.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약식 (중회의실)
9. 15.	망미동 늘푸른 경로당 개소 (망미동) 제18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장)
9. 16.	제3회 수영복지의 달 기념식 (구민홀) 다문화가정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수영구건강가정지원센터)
9. 17.	수영포럼 도시개발분과 세미나 (대회의실)
9. 18.	제2회 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회 (대회의실) 제18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본회의장) 수영사랑회 3분기 큰사랑 어르신 생신잔치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구청사 합동소방 훈련 (수영구청 광장) 하반기 폭력예방 통합 교육 (구민홀) 검소한 추석맞이 및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남천해변시장)
9. 19.	제4회 광안리 달빛 수영대회 (광안리해수욕장) 제7회 청소년 어울림마당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
9.19.~9.20.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지원 (수영구수련원)
9. 20.	하반기 수영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수영구민체육센터 외 6개소)
9. 21.	추석 대비 물가안정 대책 협의회 (중회의실) 제40주년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구민홀)
9. 22.	제10회 부산광역시장기 여성생활체육대회 참여 (부산종합운동장) 광안중학교 도서관(참슬마루) 개관식 (광안중학교) 새마을부녀회 한운동화 기부 전달
9. 23.	추석,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대비 대청결의 날 행사 (광안리해수욕장) 한가위 명절 정(情) 나눔행사 (수영구 노인복지관)
9. 24.	3/4분기 모범단체원 표창패 수여 (중회의실)
9. 30.	문화가 있는 날, 책으로 만나다. 부산, 나 그리고 우리 (부산KBS 대강당)

〈10월〉

월 일	주 요 행 사
10. 1.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대비 청결의 날 (광안리해수욕장)
10.3.~10.4.	제26회 부산생활체육 축전 (아시아드주경기장 외 9개소)
10. 2.	제7회 수영구 유아마라톤 대회 (남천동 호안도로 조깅코스)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10. 6.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 만들기 「2015년 가족음악회」 (구민홀)
10. 10.	수영팔도문화마을 수영성 난장 (수영사적공원 일원)
10. 13.	제37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일 행사 (민락동 무궁화동산) 수영구 아파트부녀봉사단 이웃돕기 바자회 (광안SK뷰 아파트)
10. 14.	독거노인 스마트 안부알리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소회의실) 수영팔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팔도한마당 (수영팔도시장)
10. 15.	제400차 민방위의 날 훈련 (수영구 전역)
10. 16 ~ 18.	제1회 로사주민대축제 (현돌실버타운)
10. 16.	아동안전지도제작 소감 글짓기 대회 시상식 (구민홀)
10. 17.	제1회 수영구 어르신 올림픽 개최 (한바다중학교)
10. 20.	수영구·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간 헌혈 약정협약
10. 21.	구민1일 명예과장 (본인희망부서)
10. 22.	수영구새마을부녀회 여성리더교육 지원 (망미1동주민센터 회의실)
10. 23.	부산자활한마당 참여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10.23.~10.24.	제11회 부산불꽃축제 지원 (광안리해수욕장)
10.23.~10.26.	호주 오번시 우호교류방문
10. 24.	제11회 부산불꽃축제 봉사단체 청결활동 (광안리해수욕장)
10. 27.	수영포럼 문화관광분과 세미나 (대회의실) 제19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10.27.~11.12.	15기 자동차를 아는 여성교실 운영 (대회의실)
10. 28.	25의용단 소방훈련 (25의용단) 문화가 있는 날, 해설이 있는 재즈 토크 콘서트 (호안도로 조깅코스) 제8차 구민나눔장터 (메가마트 남천점) 지리산 둘레길 체험 (지리산 둘레길 구례3구간)
10. 29.	제14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세종시) 수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 개소 (광안2동)
10. 30.	제11회 시와 음악의 밤 행사 지원 (대회의실) 내사랑부산 거리예술제 (민락수변공원)
10. 31.	『제39회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 참석 (구례군) 제1회 부산시민 문화 한마당 지원 (APEC 나루공원)

〈11월〉

월 일	주 요 행 사
11. 2.	11월중 직원정례조례 (구민홀) 장애인 1일 체험행사 (통영) 제19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장)
11. 4.	비교견학 우수사례 발표회 (구민홀)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대회 참여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
11. 5.	제3회 수영아카데미, 방송인 김병조 조선대 초빙교수 (구민홀)
11. 6.	수영구청장배 생활체육 태권대회 (수영사적공원) 구민독후감 시상식 (수영구도서관) 수영구-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워크숍 (대회의실)
11. 7.	25의용 향사 (25의용단)
11. 8.	수영구민 체육대회, 건강도시 수영 선포식, 제12회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 (수미초등학교)
11. 11.	「턴 투워드 부산」 추모 행사 (부산시 전역) 우수통장 사기진작 견학 (순천만 일원) 치매예방강좌 (신부산교회)
11. 13.	2015년 어린이 교통안전 포스터 공모 입상작 시상 (대회의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지구 14지역 합동 월례회 (구민홀) 제2회 영유아 보육박람회 및 그림그리기 대회 참가 (부산시민공원)
11. 14.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구민홀)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 수영구청장배 생활체육 태권도대회 (해운대 기계공고 실내체육관)
11. 15.	갈매길 걷기대회 (광남초등학교) 수영구청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부산환경공단 수영사업소)
11. 17.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산타릴레이사업 참여 (구청장실) 수영동주민센터, 수영교회 「도와줘요,슈퍼맨」 MOU 체결
11. 18.	구민1일 명예과장 운영 (본인희망부서)
11. 20.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본회의장)
11. 21.	자유총연맹 독도 골든벨 퀴즈대회 (수미초등학교) 제2회 수영성난장 (수영사적공원)
11. 23.	수영구합창단 정기연주회 (KBS 부산홀)
11. 24.	하반기 수영구 민관협력 희망플러스단 워크숍 (구민홀) 찾아가는 대입 합격 전략 설명회 (부산남일고등학교)
11. 25.	문화가 있는 날, 오늘은 트로트쇼데이 (수영구 노인복지관) 망미고가교 하부 일제 대청결의 날 행사 (망미고가교 하부)
11.26.~12.4.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실)
11. 27.	하반기 2차 폭력예방 통합교육 (구민홀) 그린아파트 인증제 우수아파트 시상 (구청장실)
11. 30.	찾아가는 대입 합격 전략 설명회 (부산동여자고등학교)

〈12월〉

월 일	주 요 행 사
12. 2.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대회의실)
12. 3.	제15회 수영구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지원 (화목뷔페)
12. 4.	수영팔도시장 야시장 개장 (수영팔도시장) 수영포럼 자치경제분과 세미나 (대회의실)
12. 7.	찾아가는 대입 합격 전략 설명회 (덕문여자고등학교) 토크콘서트 ‘유열’ 의 「어.공.톡」 (망미동주민센터)
12. 8.	연말연시 모범청소년 및 선도유공자 표창 수여식 (대회의실) 수영구 보육인 한마음대회 (마이쿠)
12. 9.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본회의장)
12. 10.	제4회 활기찬 어르신 노래축제 지원 (구민홀)
12. 11.	수영사랑회 4분기 큰사랑 어르신 생신잔치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수영구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부산예술회관)
12. 14.	광안3동 소규모 주차장 준공식 (광안3동)
12. 15.	수영구 생활체육인의 밤 (화목뷔페) 자연보호수영구협의회 산불예방 및 새집달기 활동 (금련산 일원)
12. 16.	학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1일 명예과장 (본인희망부서) 수영지역자활센터 사업보고회 (대회의실) 자유총연맹 수영구지회 2015년 사업실적 보고대회 (유토피아호텔) 수영구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구민홀)
12. 17.	광안동 주거지전용주차장 시행 (광안동 1057-28번지)
12. 21.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본회의장)
12. 23.	4/4분기 모범단체원 표창패 및 하반기 퇴임봉사단체장 감사패 수여 (구민홀)
12. 29.	환경미화원 정년퇴임식 (구민홀)
12. 31.	종무식 (구민홀)

2. 역대 구청장 명단

구 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초 대 (관 선)	부 이 사 관	강 문 조	1995. 3. 1. ~ 1995. 6.30.
민 선 제 1 대	정 무 직	신 종 관	1995. 7. 1. ~ 1998. 6.30.
민 선 제 2 대	정 무 직	신 종 관	1998. 7. 1. ~ 2000. 2.10.
권 한 대 행	부 이 사 관	윤 종 문	2000. 2.11. ~ 2000. 6. 8.
민 선 제 3 대	정 무 직	유 재 중	2000. 6. 9. ~ 2002. 6.30.
민 선 제 4 대	정 무 직	유 재 중	2002. 7. 1. ~ 2006. 4. 1.
권 한 대 행	부 이 사 관	석 희 윤	2006. 4. 2. ~ 2006. 6.30.
민 선 제 5 대	정 무 직	박 현 옥	2006. 7. 1. ~ 2010. 6.30.
민 선 제 6 대	정 무 직	박 현 옥	2010. 7. 1. ~ 2014. 5. 12.
권 한 대 행	부 이 사 관	강 재 만	2014. 5.13. ~ 2014. 6. 4.
직 무 복 귀	정 무 직	박 현 옥	2014. 6. 5. ~ 2014. 6.30.
민 선 제 7 대	정 무 직	박 현 옥	2014. 7. 1. ~ 현재

3. 역대 부구청장 명단

구 분	직 급	성 명	재 임 기 간
초 대	지 방 부 이 사 관	정 사 용	1995. 3. 1. ~ 1995. 6.17.
2 대	부 이 사 관	김 낙 연	1995. 6.18. ~ 1997. 1.14.
3 대	부 이 사 관	신 용 호	1997. 1.15. ~ 1998. 9.15.
4 대	부 이 사 관	박 종 대	1998. 9.16. ~ 1999.12.31.
5 대	부 이 사 관	윤 종 문	2000. 1. 1. ~ 2000.12.31.
6 대	부 이 사 관	김 종 해	2001. 1. 1. ~ 2004. 1.30.
7 대	부 이 사 관	이 규 발	2004. 1.31. ~ 2005. 3.14.
8 대	부 이 사 관	석 희 윤	2005. 3.15. ~ 2007. 2.12.
9 대	부 이 사 관	남 덕 우	2007. 2.13. ~ 2011. 1. 2.
10 대	부 이 사 관	서 문 수	2011. 1. 3. ~ 2011. 5.16. ※ 2011. 5.17.~5.26. 공석
11 대	부 이 사 관	강 재 만	2011. 5.27. ~ 2014. 6.30.
12 대	부 이 사 관	황 동 철	2014. 7. 1 ~ 현재

4. 구·동주민센터 간부명단

가. 구 청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총 무 국 장	우 일 헌	610-4200	복 지 환 경 국 장	김 남 두	610-4300
안 전 도 시 국 장	임 채 홍	610-4400	기 획 감 사 실 장	장 경 식	610-4010
총 무 과 장	한 기 봉	610-4110	문 화 공 보 과 장	노 규 래	610-4060
재 무 과 장	권 정 주	610-4140	세 무 과 장	이 점 선	610-4180
민 원 여 권 과 장	권 기 환	610-4260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610-4310
복 지 서 비 스 과 장	김 태 환	610-4360	청 소 행 정 과 장	안 병 재	610-4430
환 경 위 생 과 장	김 상 희	610-4380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은 희	610-4470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진 형	610-4550	안 전 관 리 과 장	신 춘 수	610-4640
건 축 과 장	김 영 진	610-4580	건 설 과 장	하 진 식	610-4660
토 지 정 보 과 장	박 태 국	610-4750	도 시 관 리 과 장	공 두 진	610-4710

나. 의회사무과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의회사무과장	배 무 영	610-4863	전 문 위 원	정 혜 숙	610-4098
				한 동 안	610-4097

다. 보건소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보 건 소 장	김 진 홍	610-5680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미 준	610-5690

라. 동 주민센터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남 천 1 동 장	이 두 헌	610-4951	남 천 2 동 장	김 영 곤	610-4952
수 영 동 장	김 영 춘	610-4953	망 미 1 동 장	강 혜 영	610-4954
망 미 2 동 장	권 광 옥	610-4955	광 안 1 동 장	서 정 수	610-4956
광 안 2 동 장	손 민 구	610-4957	광 안 3 동 장	박 정 혜	610-4958
광 안 4 동 장	김 무 홍	610-4959	민 락 동 장	허 성 욱	610-4960

5. 국회의원, 구·시의원 명단

가. 국회의원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전 화 번 호
수 영 구	유 재 중	- 부산 수영구청장 (3,4대) - 부산시의회 의원 (2,3,5대) - 국회의원 (18,19대)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T) 753-2277 (F) 754-2279

나. 시 의 원

구 분	성 명	직 위	전 화 번 호
제 1 선 거 구	강 성 태	제7대 부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888-8185
제 2 선 거 구	전 봉 민	제7대 부산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888-8030

다. 구 의 원

구 분	성 명	직 업	전 화 번 호
가 선거구	이 정 화	정 당 인	610-4870
"	이 정 희 (의 장)	정 당 인	610-4600
나 선거구	박 경 훈	정 당 인	610-4867
"	이 애 라	정 당 인	610-4869
다 선거구	김 덕 수	정 당 인	610-4868
"	김 정 수 (부 의 장)	(주)화현종합토건 대표이사	610-4862
"	장 성 기	정 당 인	610-4871
비 레 대 표	곽 봉 자	정 당 인	610-4866

6. 언론에서 본 수영구

국제신문 2015년 11월 12일 (사회) 12면

금련산에 광안리 전망대 설치

산중턱에 1km 규모의 숲 조성
탐험·전망·치유·혼적 4개 테마

부산 금련산 중턱에 광안리해수욕장 일대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들어선다.

수영구는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경계 뒤편 등산로에 이달 말까지 1000㎡ 규모의 '전망의 숲'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1억8300만 원을 들여 목재 덩을 만들고, 키가 작은 관목류 2000그루를 심어 등산로에서 광안대교와 수영·남구 일대 경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망의 숲은 산림 문화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금련산 테마 숲 사업의 일환이다. 구는 금련산을 4개 구간으로 나눠 탐험의 숲, 전망의 숲, 치유의 숲, 혼적의 숲 등 4개의 테마로 꾸밀 예정이다.

하지만 대지 소유자인 산림청에 무상사용 동의를 받지 못해 시유지인 수련원 뒤편 부지에 우선 전망의 숲을 만들기로 했다. 수영구가 테마 숲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

지 사용료를 내거나 매입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도심 속 산림을 시민 친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산림청과 협의 중"이라며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한 뒤 여건이 되는 대로 테마 숲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금련산 케이블카
전망의 숲

(11.3*15.0)cm

국제신문 2015년 03월 30일 (사회) 06면

부산 자전거길 한눈에

수영구, 안전수칙 등 담아 제작
공영자전거 이용자 우선 보급

부산 수영구가 지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자전거길 지도 제작에 나섰다. 부산 지역은 울산 창원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자전거길 확보율이 낮고, 자전거길 지도도 없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본지 지난 23일 자 1면 등 보도)을 받아 왔다.

수영구는 생태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자전거 타기 수첩'을 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첩에는 자전거 안전수칙, 공영자전거 대여소 이용안내와 수영구의 자전거길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수영구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첩을 가로 10cm, 세로 14cm의 소형 크기로 제작한다. 우선 500부를 제작해 공영자전거 대여소 이용자와 자전거 안전교육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반응이 좋으면 필요한 부분을 보완, 수정해 시민·관광객에게도 나눠줄 방침이다. 이외에도 수영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와 주민 편의를 위해 지난 20일 수영강변과 남천동, 민락동 공영자전거 무료 대여소 등 3곳에 태양광 이용 공기주입기를 설치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버튼 하나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해 손쉽게 공기압을 충전할 수 있다. 남천동과 민락동 대여소에는 각각 30, 70대의 대여용 공영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수영구는 지난해까지 광안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남천동 삼익비치파트에서 수영구는 해안 일주 자전거길 9.7km 구간을 완성했다. 특히 민락수변~수영구 구간은 기존 인도를 자전거길로 바꾸고,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해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자전거길로 사랑받고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승어가 뛰여노는 수영강과 아령이 멋진 광안대교가 있어 풍광을 보며 잠시 지친 다리를 쉬어갈 수 있는 명품 자전거길로 소문이 나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컸다"며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11.4*15.1)cm

국제신문 2015년 11월 14일 (사회) 07면

광안리 초고층 개발 "상권 활성화" vs "경관 훼손" 맞서

수영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주민 설명회 100여 명 참석
"교통대책 먼저" 요구하기도

"오랜 시간 나대지로 내버려둬 주변 지역이 슬럼화됐습니다. 개발을 서둘러야 합니다."

"누굴 위한 개발입니까. 난개발로 해 환경관이 망가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산 수영구는 13일 오후 수영구 민락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민락매립지 등 일부 지역의 건축물 제한 높이를 최대 160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인근 주민과 상인은 100여 명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찬성하는 주민은 오랫동안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뜻이 강하다. 김모(46) 씨는 "건물이 들어서면 내 집 값을 가린다. 하지만 나대지로 방치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광안리해수욕장 건물주 모임인 광우회 관계자는 "건물 높이가 올라간다고 해서 나쁜 것만

은 아니다. 건폐율이 낮아지면 공간 간격이 넓어져 오히려 조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차량 정체를 걱정했다. 이모(67) 씨는 "수영2호교로 나가는 해변도로는 왕복 2차로로 지금도 출퇴근 시간 차량 체증이 심하다. 제대로 된 교통대책 수립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김모(여·48) 씨는 "결국 계획 변경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개발업자다. 마린시티처럼 개발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 일부를 지역 발전에 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영구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다고 당장 초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주변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금 상황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영구는 부산시와 교통영향평가 및 개선대책 협의를 진행 중으로 다음 달까지 부산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23.1*8.7)cm

국제신문

전국 최대 민락회촌 ‘식중독 제로존’으로

2015년 03월 27일
08면 (사회)

4단계 알리미 전광판 12곳 설치 이미지 개선·관광객 유치도 기대

부산 수영구는 민락동 어패류 시장 등 12곳에 식중독 지수알리미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전광판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식중독 지수를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4단계로 알려준다.

수영구는 이를 위해 최근 어패류 시장 회장단과 만나 전광판 설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장 측에서도 민락회촌의 위생·청결 강화를 위해 전광판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

기로 했다.

수영구와 상인들은 전광판 설치를 통해 장마철 등 식중독 발생 위험 시기에는 음식은 물론 주변 위생·청결 상태까지 세심히 챙겨 대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안리해수욕장 바다경찰서에서 민락동 방향으로 350여 개의 횡집이 밀집한 민락회촌은 단일 면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부산 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

수영구 관계자는 “민락회촌은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회를 먹을 수 있어 국내·외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의 대표 관광지다. 식중독 지수 알리미 전광판 설치 사업을 통해 위생·청결 상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기자 lighthouse@kookje.co.kr

(17.1×9.6)cm

국제신문

2015년 04월 25일
18면 (인물)

광안리어방축제 거리 행진 경상좌수사역 배우 고인범

부산 수영구는 26일까지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제 15회 광안리어방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거리퍼레이드의 핵심 주재인 경상좌수사행렬의 수장인 경상좌수사 역에 연극인 고인범(56·사진)씨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고 씨는 (사)한국연극협회 부산시지회장, 광대연극제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수영구 자랑스런 구민상을 수상했다.

거리퍼레이드는 25일 오후 4시부터 수영구청~광안리 해변~민락동 상설무대까지 2시간가량 진행된다. 올해는 수영구 개청 20주년을 맞아 경상좌수사 행렬을 비롯해 해군의장대, 가족 퍼레이드, 마을이름 홍보단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800여 명이 참여한다.

장호정기자

(5.3×14.0)cm

부산일보

2015년 04월 25일
08면 (종합)



소망을 담아보세요 24일 시작하는 부산 광안리어방축제를 앞두고 18일 오후 수영구청 관계자들이 해변로 테마거리를 따라 소망등을 설치하고 있다. 정종희 기자 jph

(17.1×13.7)

국제신문

2015년 04월 25일
06면 (사회)



주말엔 어방축제 24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제15회 어방축제'에서 수영성 수문장 교대식이 열리고 있다. 백한기 선임기자 baekhk@kookje.co.kr

(11.5×12.0)cm

국제신문

2015년 04월 18일
07면 (사회)

광안리 횡집 “포장마차 방치 땀 폐업” 초강수

“비위생·도로점거 등 불법영업”
업소 370여 곳 고사위키 주장
시·수영구에 단속 요구 진정서
성과 없을 땐 업소허가증 반납

“무허가 업소는 눈 감고 허가 업소 호객
행위만 단속할까? 차라리 문 닫겠습
니다.”

국내 최대 횡집 밀집촌인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횡집 상인이 인근
무허가 포장마차 영업행위 근절을 요구
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허가 포장마차가
없어지지 않으면 집단영업 중단도 불사
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7개 회센터 건

물 상인으로 구성된 광안리민락회총상
가변영회(이하 변영회)는 최근 부산시
와 수영구에 민락동 어민활어직판장 일
원 무허가 포장마차 근절을 요구하는내
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변영회에 따르면 민락동 어민활어직판
장 일대에는 20년 전부터 무허가 초강
집, 포장마차 등 27곳가량이 영업하고
있다.

이철욱 변영회장은 “무허가 업소에
서는 생선회와 각종 해산물들을 비위생적
으로 조리, 판매해 민락동을 찾는 시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해 정식으로 허가
를 받고 영업하는 선량한 횡집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주말에는 이들 무허가 업
소가 도로를 점거해 주변 도로까지 심각
한 차량 정체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

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년간 관할 수영구
에 수십 차례 무허가 영업 단속을 건의
했지만 근절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변영회 소속 상인들이 불경기 속에서 힘
들게 영업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변영
회 차원에서 전 업소 허가증을 반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영회에는 370여
곳의 횡집이 가입했다.

하지만 20년 동안 영업한 포장마차
영업을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이다. 수영구에서는 지속해서 무허가 업
소 단속을 벌여 환경위생법 위반으로 수
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포장마차 상인들이 생
존권 확보를 주장하며 집단으로 수영구

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강제철거는 염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당장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광안리 어방축제에도 차질이 예
상된다. 활어요리경연대회, 가격 할인
행사 등 광안리 일대 횡집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데 포장마차 단속 문제로
영업을 중단하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
할 수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인근 횡집이 피해
를 보는 일이 없도록 무허가 포장마차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며 “장기적으로 민락대입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마무리되고 개발 사업이 진
행되는 과정에서 무허가 포장마차가 근
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효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23.1×11.5)cm

국제신문

2015년 04월 10일
08면 (사회)

수영팔도시장 야시장, 중기청 육성사업 선정

18억 지원받아 상권 활성화 박차

부산 수영팔도시장의 야시장 사업(본지
지난 1월 20일 자 6면 보도)이 탄력을 받
게 됐다.

수영구는 최근 수영팔도시장이 중소
기업점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으
로 선정돼 3년간 18억 원을 지원받는다
고 9일 밝혔다. 수영팔도시장에는 점포
139개와 노점 30개가 영업 중이다.

수영팔도시장 상인회는 이를 계기로
인근 수영사적공원 등 관광지원과 연계
해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
다. 이 중에서도 올 초부터 부평강통시
장을 모델로 추진해 온 야시장과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예
정이다. 상인회는 앞서 부산시에서 매

대 사업비 6400만 원을 지원 받아 먹거
리용 매대를 제작 중이다.

정판훈 상인회장은 “수영팔도시장은
수영사적공원 등 문화시설이 풍부하고,
교통도 편리해 명품시장이 될 수 있다”
며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도 선정된 만큼 상인들
이 톨품 물처 지역 최고의 전통시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에 위
치한 민락씨랜드시장과 민락화태운시
장에 28억 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한
다. 망미중앙시장, 남천해변시장 등 지
역 전통시장 10곳에는 40억 원을 투입
해 아케이드, 환기시스템, 소방시설, 승
강기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장효정 기자

(11.4×10.3)cm

국제신문

2015년 04월 22일
10면 (사회)

수영구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준공식

부산 수영구는 21일 광안리해수욕장 민
락동 측에 조성된 친수공간인 ‘민락해
변공원’ 준공식을 열었다.

민락해변공원은 길이 208m, 면적
3600㎡ 규모로 총사업비 24억6000만
원이 투입됐다. 공원에는 녹지와 목재
데크 등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바다 가까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 마련됐다.

그동안 이 지역은 불법 노점상 등으
로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
다. 수영구는 맞은편인 남천동 삼익비
치아파트 앞에도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
획이다.

(5.6×7.9)cm

국제신문

2015년 04월 22일
10면 (사회)

조선시대 경상좌수영 어부들의 생활은 어땠을까

수영, 어방 관련 고문서 2점 발견
광안리어방축제에서 공개 예정

부산 수영구 일대인 조선시대 경상좌수
영 지역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고문
서가 발견됐다.

수영구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열리
는 ‘제15회 광안리어방축제’에서 경상
좌수영의 어방(漁防)과 관련한 고문서 2
점을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문서는 ‘동래부어조방역시
기성책(東萊府漁條防範時起成冊·사
진)’과 경상좌수영 관리가 만든 ‘철첩
본’으로 남천동 주민인 전우홍(59) 씨가
수집한 것이다.

동래부어조방역시기성책은 1834년
정월에 제작된 것으로 동래부 관내의 방



업(防範) 어업허가서와 어세(漁稅)를
받기 위한 관인이 있는 공문서다. 기록
을 보면 ‘중급어장으로 남촌(南村·수영
구) 판곡(板串/현재의 민락동 롯데캐슬
과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앞바다에 청
대구(靑大口)를 잡는 어선 선주 김시돌
(金時突)과 하급어장에는 남촌(南村/
수영구) 앞바다 함월(項月/현재 위치
미정)에서 청대구잡이 어선주 김도순
(金道順)’이라고 적혀 있다.

또 하나의 고문서인 ‘철첩본’은 1815
년 또는 1875년에 경상좌수영 관아 관
리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영 관아
의 재산과 인원, 보직, 월급 등이 표시돼
있다. 기록을 보면 수군(水軍) 1030명,
봉화대 봉군(烽軍) 100명, 어촌전(漁村
鎭) 등이 표기되어 있고, 뒷면에는 전복
과 광어, 대구, 북어, 해의(鱈) 등 당시 수
산물의 판매 가격이 기록돼 있다. 이와
함께 관아의 월급을 받는 합납포군(合
納布軍)이 2424명, 민가(民戶) 2876호,
인구(人口) 1만2815명(남자 6105명, 여
자 6710명)이 거주한 것으로 기록됐다.

한편 수영구와 남부경찰서는 거리행
진이 열리는 2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 연안상
거리부터 만남의 광장까지 차량운행을
통제한다.

장효정 기자

(17.1×10.9)cm

국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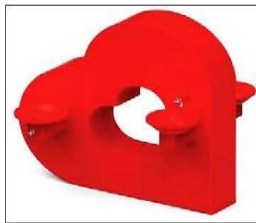
2015년 05월 08일
09면 (사회)

태닝존·이색 음수대... 확 바뀌는 광안리

장애인·아동 유영구역 지정 등
다양한 서비스로 관광객 유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이 해운대해수욕장 따라잡기에 나섰다.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아열대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지만, 매년 여름 해운대해수욕장에 밀려 '2등 해수욕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수영구는 다음달 개장을 앞두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외선 차단 전용 태닝존(일광욕 구역)을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일광욕을 즐기려는 피서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자외선 차단막이 설치된 전용 태닝존으로 피서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구는 호메



광안리해수욕장에 설치될 붉은색 하트 모양의 음수대 모형도.

르호텔 앞 백사장 상에 선베드 20개 규모의 태닝존을 조성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유영구역도 마련한다. 마리나호텔 앞 백사장 및 해상 각각 가로 50m, 세로 50m 규모를 장애인·아동 유영구역으로 지정

했다. 이곳에는 대형 몽골텐트를 설치해 샤워장과 탈의실로 활용한다. 또 휠체어가 편하게 백사장에서 해상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길이 50m짜리 고무 패드를 설치한다. 이 구역에는 119수상구조대와 구조장비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음수대도 교체한다. 기존의 낡은 음수대를 철거하고 스테인리스 재질의 붉은색 하트 모양 음수대 3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각 음수대에는 수도꼭지 5구를 설치해 피서객이 한꺼번에 물러도 빠르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제작돼 포토존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

대규모 백사장 복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내년까지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폭을 평균 23m에서 50m로 확장할 계획

이다. 우선 올해 예산 8억7000만 원을 확보해 백사장 폭이 가장 좁은 해수욕장 중간 지점에 모래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또 국·시비 23억2000만 원을 받아 내년까지 모래 4만5000㎡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 14곳에 행정기관,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표시된 소규모 안내지도도 설치하는 등 피서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박현욱 수영구청장은 “대규모 백사장 복원사업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편하고, 즐겁게 피서를 즐길 수 있다”며 “무엇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23.0×11.4)cm

국제신문

2015년 05월 21일
07면 (사회)

광안리에 SM TOWN 실현될까

민락매립지 옛 청구마트 자리
복합문화공간 건립 검토 중

국내 최대의 한류 기업인 SM엔터테인먼트가 부산 광안리 일대에 복합문화공간인 'SM 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부산시와 수영구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관광사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 SM타운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수영구 민락동 민락매립지 내 옛 청구마트 대지(사진)를 둘러보고 돌아갔다. 이에 앞서 서병수 시장은 지난 2월 서울 삼성동에 문을 연 'SM 타운 코엑스 아티움'을 둘러본 뒤, 3월께 SM 측에 SM 타운 건립을 제안했



다. 이후 부산시는 SM측의 요청에 따라 사업 용지 후보지를 추천했고, 이 가운데 옛 청구마트 대지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락매립지 옛 청구마트 대지는 2000

년대 후반 부산시가 민간 기업에 매각을 추진하다 무산된 뒤 내대지로 방치됐다. 전체 면적은 6105㎡로 공시지가만 146억8300만 원으로 실제 땅값은 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산경찰청이 2019년 신설 예정인 수영경찰서 용지로 매매 또는 교환을 검토했지만, 수영구와 주민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SM 측은 해당 대지에 소속 연예인인 엑소와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한류스타 제품을 구입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류 체험시설과 미용·건강 관련 시설이 결합된 대형 호텔 형태의 건물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는 1500억 원에 20층 정도의 규모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6층 규모의 상암동 SM타운 코엑스 아티움의 K-POP 홀로 그램 뮤지컬 공연장은 연일 매진되는 등 한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시 관계자는 “SM측이 사업비 마련 등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며, 이달 중 SM을 찾아 빠른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SM타운을 중심으로 부산이 국내 한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영구와 협조해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23.1×9.3)cm

국제신문

2015년 06월 09일
22면 (문화)

사진가 박희진의
역시! 부산



시집 은 모래, 여름 해변 달굴 준비

부산 해수욕장들이 6월 1일 개장했다. 2만 2000 t의 시집은 모래와 원래 이 해변을 지키던 터줏대감 모래가 신선살림

(?)을 자리는 광안리해수욕장의 여름이 기대된다. 광안리 백사장엔 '신혼집들이'날을 7월 1일로 잡았다.

광안리는 현재 진행 중인 복원공사에 따른 안전 점검 문제로 다른 곳보다 한

달 늦게 개장해 오는 9월 10일까지 운영한다. 광안리 '모래 부부'의 집들이 선물로 뜨거운 여름의 태양을 준비해본다. 여름 바다는 모두를 설레게 한다. 역시! 부산. 동주대 사회복지과 교수 (17.3~14.5)cm

국제신문

2015년 05월 14일
08면 (사회)

수영구 민락동 백산허리길 확장 사업

좁은 도심 산길로 유명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백산허리길(위지도)을 확장한다. 수영구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국·시비 100억 원을 들여 수영교에서 민락교에 이르는 길이 600m, 폭 5~7m 도로인 백산허리길 확장 사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 길은 광안리해수욕장 등 일대 관광지를 찾는 시민이 주요 이동로로 사용해 교통수요가 많다. 최근에는 민락매립지 아파트 공사등으로 차량 통행이 급증했다. 하지만 도로 폭이 좁고, 급커브길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도로 확장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6*12.5)cm

국제신문

2015년 05월 14일
08면 (사회)

막바지 여름까지 신나게 23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1회 광안리 물총축제에서 참가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백한기 선임기자 baekhan@kookil.co.kr (17.3~14.5)cm

국제신문

2015년 05월 14일
08면 (사회)

광안리서 펼쳐진 장여인해양제형대회 6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2015 부산시장기 장여인해양제형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열띤 경합을 벌이고 있다. 대회에는 학생부 10팀, 일반부 12팀 등 총 22개팀이 참가했다. 서순용 선임기자 seosun@kookil.co.kr (17.3~14.5)cm



지난달 30일 부산 수영구 민락해변공원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 더위를 식히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인기 많아 피곤한 민락 해변공원

젊은층 술자리 급증해 치안 강화 하루 최대 12t 쓰레기도 골치

“해운대에 데미어가 있다면 광안리에는 민락배가 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민락해변공원이 젊은이가 모이는 장소로 인기를 끌면서 치안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달 31일 저녁부터 삼삼오오 인파가 몰렸다.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지만, 상당수는 20대 젊은이였다. 한껏 뒀을 부린 20대는 가족단위 시민과 같이 인근 해변에서 구입한 화를 연주 삼아 술반을 벌였다. 그 사이 곳곳에서 남녀가 짝을 이루는 부킹을 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민락수변공원은 매년 여름철이 되면 밤마다 더위를 피해 휴식공간을 찾거나 오는 인파로 가득찬다. 공원의 전체 면적은 3만3000㎡로 여름철에는 동시에 평균 1만 명 정도가 찾는다. 이날 인파

수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과 비슷한 수준.

을 들어 20대 피서객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치안 확보에 신경을 쓴다. 유해국 남부경찰서장은 지난 주말 현장을 둘러보고 순찰차 4대를 투입하는 등 치안 강화를 지시했다. 유 서장은 2일 “매년 패싸움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올해는 광안리해수욕장의 대규모 배사장 복원 사업으로 개장이 7월로 연기돼 민락수변공원에 치안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람 수만을 쓰레기도 넘쳐난다. 지난 주말과 휴일 수영구가 민락해변공원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12t 가량. 대형 마대자루 150개 분량이다. 오후 6시부터 공무원 6명을 투입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쓰레기를 치우지만 사실상 치지 곤란하다. 지난해 종량제 봉투 사용이 자리를 잡아가 했는데 1년 만에 흐지부지됐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11.4~23.3cm)

국제신문

해수욕장 인기따라 민간안전요원 모집 희비

다대포·임랑·일광 정원 못 채워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맡은 개별 기초자치단체가 민간안전요원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해운대·광안리·송도 등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외곽에 자리한 해수욕장에는 지원자가 적어 해당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1일 해운대구는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에 투입할 민간안전요원 52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는 채용 공고를 내는 대신 관련 단체인 대한생활스포츠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인원을 확보했다. 공고에 비해 서류 접수면접에 드는 시간을 아끼고 곧바로 검증된 인력을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와 협회는 유사 시 서로를 돕기 위해 이 같은 협약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영구가 광안리 해수욕장에 투입할 민간안전요원은 18명이며, 이날 현재까

지 17명이 지원했다. 서구(송도 해수욕장) 또한 채용 공고를 내고 20명의 안전요원 중 15명을 확보해 성수기 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해수욕장의 접근성이 낮은 사하구(다대포 해수욕장)와 기장군(임랑·일광 해수욕장)은 인력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 사하구는 10명 채용을 계획하지만 현재까지 지원자는 3명에 그치며, 20명을 채용하는 기장군에는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다.

김민주기자

(11.3~12.2cm)

국제신문

규제에 막힌 수륙양용버스 바닷길 열리나

내년 상반기 광안리 도입 예정 지점상 해상 운항지역 제외 구, 뒤통수 파악하고 개정 건의

부산 수영구가 내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안리해수욕장 수륙양용버스 사업(본지 지난달 1일 자 2면 등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 규정상 바다 구간 운항이 힘들기 때문이다. 수영구는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지만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수영구는 8일 해양수산부에 ‘수륙양용선박(버스) 검사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2009년 제정된 이 지침에 따르면 수륙양용버스는 호수 하천 항해



네덜란드에서 운항 중인 수륙양용버스.

항만구역 이하구역 등에서 운항할 수 있다. 해수부는 2010년 수상레저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안리 앞바다 3.4km 구간을 항만구역인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는 광안리 앞바다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운항할 수 없다. 광안리 앞바다는 파고와 낮고 잔잔

한 평수구역에 속하지만 지침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안리 수륙양용버스의 예상 운항 구간은 광안리와 수영강 일대 수상 5km와 육상 13km다. 수변공원에서 출발해 광안리 앞바다, 광안대교 교각, 마린시티, 수영강을 거쳐 영화의 전당, 신세계 백화점, 벅스코, 시립미술관, 광안대교 상반, 삼익비치 아파트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운항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구는 광안리 앞바다는 해수 순환이 적은 ‘폐쇄해역’인데다 수륙양용버스가 오가는 구간인 광안대교 일대 해역의 수심이 10m 인방에 불과해 항해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는 1단계로 항해구역에 폐쇄해역 개념을 적용해 수영만(수영교-민락동) 롯데디자인테크(수)로 운항 구간을 확대

하고, 2단계는 수심 10m 지역인 광안대교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노규래 문화정보과장은 “전국 최초로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하려다 보니 관련 법과 규정이 미비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광안리 앞바다와 비슷한 영국형 케어먼 군도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수륙양용버스를 운항하고, 해수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지침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 부산시와 수영구가 민간 사업자와 함께 40인승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추진하다 자금난 등으로 좌초된 바 있다. 당시에는 광안리 앞바다가 부산항 항계에 속했고 수륙양용버스 검사 지침도 없어 사업 추진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23.1~11.9cm)

국제신문

2015년 07월 18일
11면 (문화)

부산불꽃축제 등(燈) 작품 공모전

부산시는 제11회 부산불꽃축제 부대행사의 하나로 오는 9월 13일까지 60일간 '등화와 연화의 조화'라는 주제로 부산 불꽃축제 등(燈) 공모전을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부산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festival.busan.kr),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에서 확인한 뒤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주제는 바다, 영화, 불꽃, 설화, 기타 소재 등 제한이 없으며 창작 작품을 선정한다. 등(燈) 작품 전시는 오는 10월 19~31일 수영강변 특설 전시대에서 진행된다. 한편 제11회 부산불꽃축제는 10월 23, 24일 이틀간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11.4×5.8)cm

국제신문

2015년 07월 28일
30면 (오피니언)

포토에세이

오토바이야, 제트스키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용 수륙양용 제트스키가 나타났다. 육상에서는 사륜 오토바이로, 수상에서는 제트스키로 사용할 수 있다. 육지, 수상에서 최고속도 시속 80km까지 낼 수 있다고 한다. 분조를 다루는 인명구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119구조대원에게 최적의 장비로 여겨진다. 올여름 광안리바닷가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기대해 본다.

강덕철 선임기자 kangdc@kookje.co.kr
(9.7·10.0)cm

국제신문

2015년 07월 18일
11면 (문화)

부산불꽃축제 등(燈) 작품 공모전

부산시는 제11회 부산불꽃축제 부대행사의 하나로 오는 9월 13일까지 60일간 '등화와 연화의 조화'라는 주제로 부산 불꽃축제 등(燈) 공모전을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중·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부산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festival.busan.kr),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에서 확인한 뒤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주제는 바다, 영화, 불꽃, 설화, 기타 소재 등 제한이 없으며 창작 작품을 선정한다. 등(燈) 작품 전시는 오는 10월 19~31일 수영강변 특설 전시대에서 진행된다. 한편 제11회 부산불꽃축제는 10월 23, 24일 이틀간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11.4×5.8)cm

국제신문

2015년 07월 14일
08면 (사회)

민선6기 1주년 부산 구청장군수 릴레이 인터뷰



박현욱(오른쪽 두번째) 부산 수영구청장이 백산 재해예방 사업지에서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수영구청장

"남은 임기는 현안 해결하기 위한 토대"

■ 박현욱 수영구청장

광안리 젊은층 몰리며 상권 발전 전국 첫 차상위계층 전수조사 지역별 사업 자율성 필요 지적

"임기 동안 광안리해수욕장이 정말 발전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지금은 해운대보다 낫다." 박현욱(60) 부산 수영구청장에 대한 이태섭 부산광역시회장의 평가다. 재선 시의원을 지낸 박 청장은 3선 구청장이다. 이 회장의 말처럼 박 청장은 임기 동안 무엇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해택은 지역 상권에 돌아갔다. 차 없는 거리가 열리는 주말이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는 '광안리'라는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여름밤과 젊음을 상징하는 곳으로 변했다.

박 청장은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수영구 발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구정을 이끌어 왔다"며 "나와 구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손소리는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올해 9 회재를 맞은 차 없는 거리는 시작 당시 소음 등의 이유로 상인 반대가 거셌다.

복지에도 집중했다. 전국 최초로 차상위계층과 폐지수집노인 전수조사 등 장기호호 복지선보였다. 광역시 자치구에서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장기호 복지사업은 어렵고, 못낼 얘기였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 동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꾸려졌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큰 도움이 됐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한계도 많다. 박 청장은 "기초단체의 한계는 예산이다. 매칭과 평가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물론 일선에서 정부 정책을 서비스해야 하지만 지역별 사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공공복지 확보,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해양관광사업 활성화 등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지만 모든 걸 내가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은 기간 후임 구청장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업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영구를 위해 일을 할 기회를 준 주민에게 '저 사람 잘했지'라는 평가를 듣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창호정 기자 hgnhouse@kookje.co.kr
(11.5×20.4)cm

국제신문

2016년 10월 20일
8인면 (문화)



양발에 핀(물갈퀴)을 신고 힘차게 바다 수영을 하고 있는 핀수영 선수들.

광안리에 뜬다, 500명 인간 돌고래

8월 8일 부산시장배 바다핀수영대회-명문클럽 및 동호회 총출동

500명의 ‘인간 돌고래’가 자신이 속한 클럽의 명예를 걸고 광안리 앞바다에서 화려한 수영 실력을 뽐낸다.

오는 8월 8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부산시수중협회가 주관하는 제20회 부산광역시장배 전국 바다핀수영대회가 열린다. 1995년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처음 열린 이 대회는 올해로 꼭 20회째를 맞았다. 역사로 보나 참가자 수준 및 규모로 보나 단연 전국 최고의 바다핀수영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내로라하는 클럽 및 동호회가 총출동한다. 부산의 대표 핀수영클럽인 현주핀수영클럽, 부산핀수영동호회, 사직핀수영동호회 등을 비롯해 경남 지역 명문 클럽인 김해핀수영연합회, 창원핀수영클럽, 양산생활체육핀수영연

합회 등이 참가해 종합 우승에 도전한다. 또 경북지역의 구미돌핀클럽, 울산의 울산핀수영동호회, 대전사크핀수영클럽 등도 지역을 대표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대회 참가자는 총 500여 명으로, 동호인과 응원단까지 합치면 1500여 명의 바다핀수영 관계자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중·고등·대학선수권부와 일반(남녀) 1~3부 등 총 4개 부로 나누어진 행된다. 또 부별로 왕복 1km와 2km 코스로 나눠 실력을 겨룬다. 2km 코스의 경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을 출발해 광안대교 중간 지점까지 갔다 돌아오는 코스이고, 1km 코스는 백사장~광안대교의 절반 구간을 돌아오는 코스다.

대회 시상은 개인 부문과 종합 순위로

나뉘 진행된다. 개인의 경우 각 부문 1~3위를 차지한 선수에게 상장과 메달, 상품을 수여한다. 종합 순위는 일반클럽대항전을 통해 우승과 준우승, 3위팀을 가린다. 소속팀 선수가 획득한 1위부터 10위까지의 점수와 산정점수를 합산해 점수가 가장 높은 클럽이 종합우승을 차지한다. 우승팀에는 상금 50만 원, 준우승팀은 30만 원, 3위팀은 2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대회 전날인 7일에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핀수영 선수, 코치와 함께 바다핀수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료 강습회가 열린다. 평소 바다수영이나 핀수영에 관심이 있던 시민들에게는 좋은 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필순 부산시수중협회장은 “부산바다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핀수영대회는 여러 동호인이 바다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바다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과 사람은 하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동호인이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이 참여해 바다핀수영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08.4.27 20:16

국제신문

2015년 07월 27일
06면 (사회)

오늘 부산 해수욕장 모두 개장

부산 여름 바다가 활짝 열린다. 부산시는 1일 광안리·다대포·일광·임랑해수욕장을 동시에 개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개장한 해운대·송도·송정해수욕장을 포함해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 전체가 손님을 맞는다.

광안리해수욕장은 올해 백사장 확장 공사로 예년보다 한 달 늦게 개장한다. 대신 피서객 편의를 위해 세족장과 화장실을 추가로 마련했으며, 수변공원에 새 나무를 심는 등 주변을 말끔히 정비했다. 또 장애인·어린이 등 보호자가 필요한 취약자 전용 휴영구역, 자외선 차단 태닝 존을 지정했다.

개장 기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양한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시는 1일 오전 10시 만남의 광장 앞에서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하는 개장식을 진행한다.

최근 종합 천수공간으로 탈바꿈한 서

부산 명소 다대포해수욕장에는 최대 2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물놀이 시설이 들어섰다. 이 시설은 바다 수영과는 별개로 가족 단위 피서객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노을정 인근 바닷가엔 생태체험학습장이 조성됐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선 '꿈의 낙조분수'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 마당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체험할 수 있다.

일광해수욕장에선 이달 말 제19회 거장갯마을축제와 2015 낭만가요제, 같은 시기 임랑해수욕장에선 2015 거장임랑썸머뮤직페스티벌이 열려 바다 음악·열정·젊음·낭만이 한데 어우러진다.

시 관계자는 "중등호흡기증후군(메르스) 기세가 꺾이면서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해수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11.4·12.4)cm

부산일보

2015년 07월 27일
25면 (스포츠)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 오늘 광안리서 개막

27일부터 29일까지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2015 코로나배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포스터 사진)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의 2개 팀을 포함해 미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캐나다 등 7개국에서 총 8개 팀이 참가한다. 풀 리그 방식으로 사흘간 경기를 펼쳐 우승팀을 가린다.

코로나배 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는 코로나 맥주 브랜드가 전 세계에서 펼치고 있는 '나만의 해변을 찾아서'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코로나는 이번 대회 기간 코로나로 국민경기장 주변을 찾은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포토존과 게임존을 운영한다.

코로나 관계자는 "휴가철 광안리해



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박진감 넘치는 비치발리볼 경기와 코로나가 마련한 이색 이벤트를 통해 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변현철 기자 byunhc@
(11.9·10.1)cm

국제신문

2015년 07월 27일
06면 (사회)

차 없는 광안리의 밤 지난 4일 밤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시행된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에서 라인댄스 공연이 열리고 있다.

김성효 기자 kims.h@kookje.co.kr
(23.1·10.5)cm

국제신문

2015년 08월 12일
24면 (인물)

신생윤리연구소 모운희(회장 조순아)는 지난 7, 8일 광안리해수욕장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쓰레기 되가져가기'와 미아 보호 캠페인을 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7.7·5.8)cm

국제신문

2015년 08월 17일
25면 (인물)

부산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지난 12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태극기의 소중함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광복 70주년 맞이 태극기 달기운동 행사를 열었다.

(7.8·6.3)cm

국제신문

부산 광안리 민락매립지 고도제한 완화될까

건축물 최고 높이 60→150m
수영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시에 다음 주심의 신청 예정
10월 중순 통과 여부 판가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민락매립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마련돼 변경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영구는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지역을 합리적으로 재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거쳐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수영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일괄공고를 끝낸 상태로

이르면 다음 주 부산시에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 중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수영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열 예정이다. 오는 10월 중순에 변경안 통과 여부가 공개될 예정이다.

수영구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내용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민락매립지 건축물의 높이를 현행 60m에서 150m로 높이는 것과 광안리해수욕장 이면도로 쪽 부지의 용도를 행정중추거래지역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를 기존 60m에서 75m로 높이는 것이다. 이 중 핵심은 민락매립지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다. 2005년 공사가 끝난 민락매립지는 그동안 고도제한 때문에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0년 동안 내세로 방치돼 왔다. 2005년 마련된 '주요 해안경관 개선방안'에 따라 건물 높이가 60m 이하로 제한된 것이다. 해운대 마린시티 등 민락매립지와 함께 고도제한을 받았던 지역은 이미 규제가 다 풀렸으나, 유독 이 지역만 여전히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고도제한 규제가 풀이면 서 민락매립지 일대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상권이 침체했다. 또 일대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난립하면서 인근 상인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따라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청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민락매립지의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 준주거지역인 전로비자이파트를 포함해 민락매립지 일대를 지구단위로 개발할 경우 높이를 최고 150m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개발되지 않았던 부지를 75m로 제한했다. 지구단위 개발은 개별 필지를 1개 이상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으로 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 변경안은 또 민락매립지 내 기존 도로를 폐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수영구청은 폐도한 곳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한 이후 폭 4m 이상의 공공 보행도로와 8m 이상의 운송차로로 개발해 이를 보행차 도로로 사용

할 방침이다. 수영구청 김형진 건축과장은 "민락매립지의 경우 기존에 개발된 구역에 고려해 제한 높이를 정했고, 개발 방식에 따라 형평성을 봤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시의의를 통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욱 종합정보기자 byun@kook.co.kr (23.11.15.09)

국제신문

부산 해수욕장들 킬러콘텐츠 “골라 즐겨라”

광안리 태닝존 피서객에 '입소문'
해운대 유아놀장·생존수영 교육
다대포는 해변공원·분수공연

부산지역 해수욕장이 특화된 콘텐츠로 피서객을 유혹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도 각 해수욕장의 콘텐츠를 보고 행선지를 결정할 정도로 해수욕장을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졌다.

수영구가 올해 처음으로 설치한 호메르스호텔 앞 자외선 차단 전용 태닝존(일광욕 구역)에는 일광욕을 즐기려는 피서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시간 간 2만 원으로 파라솔이나 비치베

드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하지만 본격적인 피서철에 접어들면서 젊은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구릿빛 피부를 만들려는 태닝족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총 10개의 선베드를 접기가 쉽지 않을 정도다. 수영구는 피서객 추이를 보고 선베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백사장의 폭이 두 배 이상 넓어진 해운대해수욕장에 다양한 즐길거리가 생겼다. 해운대구는 미포항 방면 백사장에 키즈존을 만들어 어린이 전용 놀장 두 개를 백사장에 배치했다. 영유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전용 놀장에 어린이용 튜브와 각종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구는 또 해운대해수욕장 끝에 생존수

영교육장을 만들어 깊은 물 속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수영 방법을 전수하고 있다. 생활스포츠협의회 전문가를 초빙해 생존수영과 함께 심폐소생술 등도 교육한다.

'원조' 송도해수욕장은 2013년 거북섬 인근에 복원된 높이 5m, 8m의 송도다이빙대가 인기 만점이다. 한때 해수욕장의 4대 명물로 손꼽히던 물놀이 시설을 복원한 것인데 매년 여름 피서객을 끌어모으면서 최근 페이스북 페이지 '부산공감'에 다이빙 영상이 포스트된 모두 6000여 건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104m 길이로 개방한 해상산책로도 뺄놓을 수 없다. 바다 위를 거니는

듯한 기분을 선사하는 해상산책로는 방문객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산책로로 인한 외자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제1회 포장유선(늘잇배) 사업 또한 탄력을 받고 있다.

을 연말 완공 예정인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다대포해수욕장엔 해변공원이 들어섰다. 백사장 14만2900㎡에 해수욕, 산책로, 잔디광장, 지압보호, 나무 쉼터, 쉼터, 소나무 숲이 들어서면서 해수욕과 휴식까지 즐길 수 있게 됐다. 음악 분수 공연이 열리는 꿈의 낙조분수는 다대포 해수욕장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분수 공연은 오는 23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8시, 밤 9시 2회 펼쳐질 예정이다. 장호정 권영희 기자 byun@kook.co.kr (23.11.15.09)

국제신문

수영강·해운대 수륙양용버스 내년 달린다

부산시 10월 중 사업자 선정
광안리 앞 운항제한 풀리면
해상으로 노선 확대할 계획



강과 바다. 땅을 누비는 수륙양용버스를 머잖아 부산에서 탈 수 있다. 그동안 수영구가 제안했던 운항 제한 규제 탓에 제동이 걸린 사업(본지 지난 6월 1일 자 2면 등 보도)을 부산시가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중 수영강과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규곡 경제부시장 주재로 일자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해상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수륙양용버스 운영을 결정했다.

수륙양용버스 1단계 노선은 해양수산부 '수륙양용선박 검사 지침'상 운영

이 가능한 수영강을 중심으로 그렸다. 광안리 해변에서 출발한 수륙양용버스는 수영강에서 입수해 수상을 직선 형태로 왕복한 후 다시 육상으로 올라와 영화의전당→센텀시티→백스코→시립미술관→광안대교→삼익아파트를 거쳐 다시 차고지(민락 매립지)로 돌아온

다. 운행시간은 수상(5km) 25분, 육상(15km) 35분 등 1시간가량이다.

시는 현재 광안리 앞바다에 대한 운항 금지 조치가 풀리면 수륙양용버스 노선(2단계)을 해상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륙양용버스는 광안리해수욕장 끝 지점에서 입수해 바다와 강을 따라 좌수영교까지 올라간 뒤 영화의전당에서 삼익아파트에 이르는 육상 구간을 달린다.

수상과 육상 구간 전체 길이와 운행시간은 1, 2단계가 똑같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인천시가 최초로 경인운하를 오가는 수륙양용버스 운영을 시작했지만, 해상을 운항하는 사례는 부산이 처음이다.

사업은 발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당장 다음 달까지 사업자 공모와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10월 중 심사위

원회를 구성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해수부에 수륙양용선박 검사 지침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해 광안리 해상에도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광안리 해상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자료도 준비했다.

시는 수륙양용버스가 운영을 시작하면 버스 제작과 노선 운영 분야에서 2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의 방문이 늘어 해상·육상 관광산업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 부시장은 "광안리 일원은 바다와 강이 연결되고 광안대교·마린시티의 경관이 수려해 수륙양용버스 운영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kear@kook.co.kr (23.11.15.09)

국제신문

2015년 08월 31일
02면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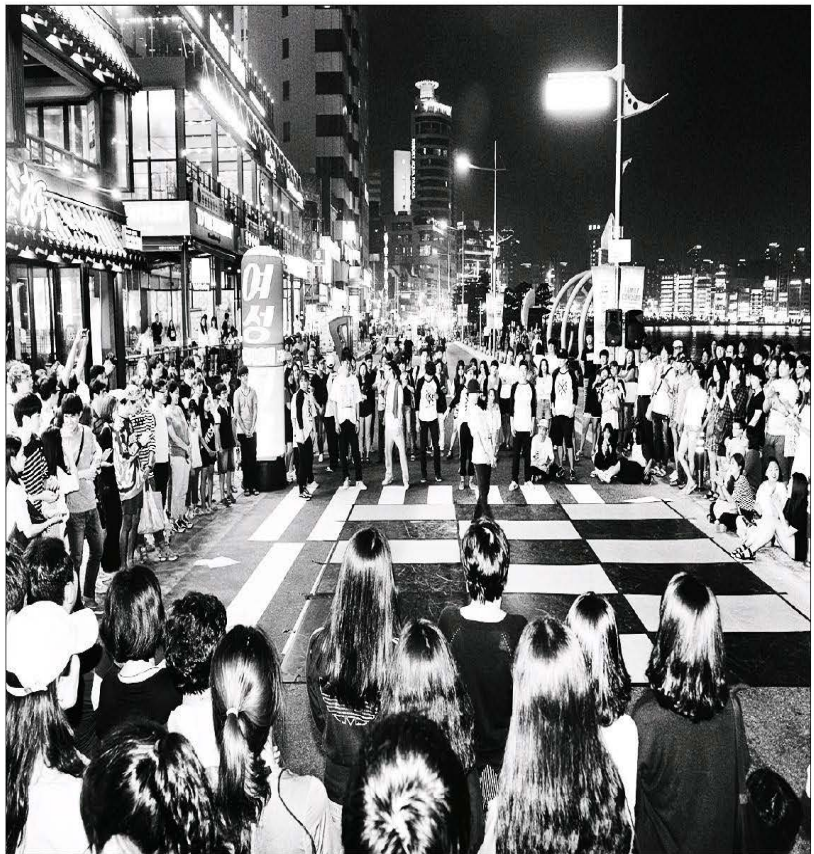
차 없어 더 '핫'했다, 광안리의 주말밤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차량 차단하고 거리공연
하루 평균 15만 명 즐겨
야간 해변 명소로 우뚝

30일 밤 9시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 인도에 대기 중이던 거리공연팀이 해변도로를 따라 자리를 잡았다. 해변도로는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공연팀을 중심으로 사람으로 가득 찼다. 가족 친구 연인 등 시민·관광객은 삼삼오오 해변도로를 따라 열리는 다양한 공연을 즐겼다. 도로변 상점가에도 손님 행렬이 이어졌다. 김영선(여·34·부산 수영구 광안동)씨는 “자주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데 거리공연이 규모는 지난해보다 작아졌지만 질적인 면에서 알차진 것 같다”며 “광안대교 앞에서 펼쳐지는 여름밤 거리공연은 단연 최고”라고 말했다.

광안리해수욕장이 ‘여름밤’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가 올해로 8회째를 맞으면서 주말 밤이면 SNS에는 ‘광안리로 집결’이라는 신호가 넘쳐난다. 여기에 더해 국내 유일의 수변 친수공원인 민락수변공원까지 인기를 끌면서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민락수변공원으로 이어지는 ‘밤의 거리’가 형성됐다.

올해 광안리해수욕장에는 1225만 명이 찾아 지난해 660만 명보다 관광객 수가 배가량 급증했다. 이 가운데 30%인 367만 명이 야간에 찾은 관광객으로 분석된다.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뒤 하루 평균 6만~7만 명가량이 광안리해수욕



30일 밤 9시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도로에서 ‘차 없는 문화 거리 행사’의 하나로 비보잉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서순용 선임 기자 seosy@kookje.co.kr

장을 찾은 것이다. 특히 야간에만 관광객이 붐비는 수변공원까지 합하면 하루 평균 15만 명 이상이 ‘밤의 거리’를 찾은 셈이다.

일등공신은 차 없는 문화의 거리다.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변도로(연양블로그 앞 삼거리~만남의 광장 780m 구간)에서는 주말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피아노와 테너의 앙상블 공연,

세계민속공연, 오케스트라 연주, 해피밴드 페스티벌, 비보이(B-Boy)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평일에도 평균 5팀 정도가 거리공연을 하며 관광객을 유혹한다.

덕분에 광안리해수욕장 중심 상가의 월세가 50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상권도 최고 전성기를 맞았다. 민락수변공원 인근 횡집과 주점, 소규모 슈퍼마켓

등에도 오후부터 새벽까지 관광객으로 넘쳐난다. 박현욱 수영구청장은 “처음에는 상권을 망친다는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민관이 힘을 합치면서 지금의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정착됐다”며 “가족 단위의 관광객에게도 불편하지 않은 밤 문화를 만들기 위해 치안 환경 등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23.1×21.3)cm

부산일보

2015년 06월 26일
09면 (사회1)

수영팔도시장에도 '야시장' 선다

주민센터 부근 110m 구간
상인회 주도로 10월 개장

부산 수영팔도시장에 오는 10월 야시장이 개설된다. 부평강통시장 야시장의 성공에 힘입어, 수영팔도시장, 초량 이바구 시장이 차례로 개장을 앞두고 있다.

25일 부산 수영구청과 수영팔도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30일 야시장 개장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 다른 야시장들과 달리 지자체가 아닌 상인회에서 먼저 야시장 개장을 제안했다. 남이갈수록 침체되는 전통시장에 젊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오는 10월 23~29일 6일간 시범 운영을 하고, 30일 본격 개장한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연중 상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수영동 새마을금고부터 수영동 주민센터까지 110m 구간에 대해 15곳이 설치된다. 13곳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남아공 등 세계를 대표하는 음식을 판다. 모두 다문화 가정 출신이다. 나머지 2곳은 각각 케냐 전통 수공예 액세서리, 일본 금붕어잡기 놀이 매대다.

상인회는 잡음을 막기 위해 시장



상인들의 참여는 일단 배제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과 손을 잡았다. 대신 야시장 매대 상인들로부터 시장발전기금을 받기로 했다.

수영구청은 원활한 야시장 지원을 위해 도로점용조례를 개정하고,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즉석식품 판매 제도가공업 시설기준 운영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투입되는 예산은 야시장 매대 제작비용으로 들어가는 시비 6천400만 원이 전부다. 나머지는 시장 상인과 야시장 상인의 협의로 운영된다.

수영팔도시장 정판촌 상인회장은 "수영사적공원 같은 기존 자원과 수영문화마을을 사업, 문화관광형 시장 선점이 맞물려 야시장 운영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에 오면 꼭 찾는 관광명소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ma3@

(11.9·19.6)cm

부산일보

2015년 06월 26일
09면 (사회1)

'연극' 보며 더위 잊고

14~16일 광안리해수욕장
바다 배경 '광대연극제'

물총축제 '수타워즈', 조개잡이에 이어 이번엔 연극이 광안리해수욕장을 뜨겁게 달군다. 14~16일 부산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에 서 열리는 '광대연극제' 얘기다.

부산 지역 극단 10곳, 광주 지역 극단 1곳이 참여, 모두 11작품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14일 오후 9시 극단 백의 '임진왜란'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창작 마당극 '수영할매 심달래'(15일 오후 9시), 마당극 '됐다! 심봉사'(15일 오후 10시, 16일 오후 9시, 2회 공연), 뮤지컬 '달빛 미치다'(15일 오후 10시), 인형극, 난버벌 퍼포먼스 등 다

양한 장르의 연극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연극 1편당 1시간가량이고 전부 무료다. 민락 수변공원 쪽 만남의 광장과 차없는 거리 쪽빛마당에서 공연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연극 프로그램도 있다.

'내가 광대!' 프로그램에 미리 신청한 시민 10팀이 20분씩 연극 경연을 벌여 그중 3팀은 수상의 영광을 누린다.

연극을 보지 않더라도 15일 오후 10시 광안리해수욕장 차없는 거리에서 가면퍼레이드, 마담 공원, 코스프레 등이 펼쳐져 볼거리가 많다. 광대연극제는 2004년 1회가 개최된 이후 12번째다. 수영구가 주최하고 광대연극제 운영위원회(위원장 고인범)가 주관한다.

조영미 기자 ma3@
(10.9·11.7)cm

국제신문

2015년 09월 25일
27면 (인물)



대한민국 6.25추념유공자회 수영구지회(지회장 유재현) 회원 130여 명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 초청으로 수영구 광안동 화북부페에서 위안잔치를 했다.
(7.7·6.3)cm

국제신문

2015년 09월 14일
02면 (종합)

“연간 1500억 경제효과... 민락매립지 고도제한 완화해야”

“슬럼화 해결되고 상권 활성화”
수영구, 이달 시에 변경안 전달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민락매립지의 고도제한 완화가 본격 추진(본지 지난달 18일 자 14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의 개발 시 연간 1500억 원이 넘는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사는 민락매립지 내 3만600㎡ 부지에 지상 27~45층 주거시설 5개동과 5성급 관광호텔, 판매시설, 미술관 등을 건립하는 복합개

발 계획을 갖고 있다. A사가 회계법인 삼정KPMG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질 경우 연간 1552억 원의 경제유발효과와 806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지역에 들어가는 해택의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대지면적 감정가를 기준으로 A사가 기부채납해야 할 금액은 100억 원 이상(현재 사업부지 감정가 기준)으로 추산되는데, 이 돈은 사업지 주변을 비롯해 수영구 전체 주민들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인근상인 및 주민들은 경제유발효과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슬럼화 문제 해결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변지역발전협의회 서

봉원 회장은 “민락매립지가 10년 이상 방치되면서 일대가 슬럼화되고 상권도 침체됐다. 대규모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이 들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이 일반개발이 아닌 복합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질 경우 고도제한을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동명대 조승구(건축학과) 교수는 “복합개발은 입주민만의 이익을 위한 일반개발과는 달리 주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도시 재생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복합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등이 제대로 이뤄진다고 전제할 경우 해당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다. 조교수는 또 “이미 고도제한이 풀린 마린시티나 남천삼익비치아파트 재건축부지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영구는 민락매립지 건축물의 높이를 현행 60m에서 150m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께 부산시에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병욱 기자 junny97@koook.co.kr

(23.2·10.2)cm

국제신문

2015년 09월 17일
06면 (사토)

수영 아이파크 정문~민락교 계단에 자전거레일 설치

해운대~광안리 자전거레일 편리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를 잇는 자전거레일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영구는 생태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수영만 아이파크 정문에서 민락교로 올라가는 계단에 자전거레일(사진)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자전거 이용객은 광안리에서 민락교를 건너 해운대로 이동하려면 무거운 자전거를 들고 9m 경사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구는 지난해까지 광안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남천동 삼아비치아파트에서 수영교 입구까지 해안 일주 자전거레일 9.7km 구간을 완성했다. 하지만 수영교를 통해 해운대로 넘어가는 코스는 민락교 코스보다 2km가량 멀어 20분가량을 우회해야 한다.

네덜란드를 비롯해 유럽의 생태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도시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자전거레일과 연결된 계단에 전용레일을 놓는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객에게는 계단이 큰 장애물이라는 점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생태교통 수단 이용률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레일과 연결되는 계단을 파악해 전용레일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호정 기자 hthouse@kookje.co.kr
(11.4~12.30cm)

부산일보

2015년 09월 22일
10면 (사토)

오늘 '불꽃축제' 유료좌석 팝니다

티켓몬스터서 4천 석 판매

부산시는 내달 23일부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불꽃축제' 유료좌석 티켓 3차 판매를 오는 22일 낮 12시부터 진행한다.

이번 3차 티켓은 판매대행사 티켓몬스터(<http://www.ticketmonster.co.kr>)를 통해 테이블·의자 등을 갖춘 10만 원짜리 R석(600석)과 의자만 제공하는 7만 원짜리 S석(3천400석) 등 총 4천 석을 판매한다.

앞서 지난 달 3일과 20일에 진행된 1차와 2차 판매는 준비한 수량 2천 석이 모두 매진됐다. 부산이 아닌

지역에 65% 정도 판매돼 부산불꽃축제의 관광 상품 가치를 확인했다.

'제11회 부산불꽃축제'는 내달 23일과 24일간 이틀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불꽃의 연출 공간을 종전 1곳에서 3곳으로 늘려 이기대~광안리해수욕장~동백섬을 잇는 U자형으로 연출할 계획이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는 유료좌석 인터넷 판매나 여행사를 통한 해외 판매와 함께 행사 내용에도 노력을 기울여 불꽃축제를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 기자 jee@kookje.co.kr

(11.8~11.7)cm

국제신문

2015년 09월 18일
10면 (사토)

'오염 총량관리'로 수영만 해역 수질 개선한다

오염물 배출량 하루 4t 줄여
5년간 COD 개선-5800억 투입

부산 광안리-해운대해수욕장 일원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1일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수영만 해역을 대상으로 연안 오염 총량관리제를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연안 오염 총량관리제란 해당 수역의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오염물의 유입 총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경남 마산만

(2007년)과 경기 시화호(2013년)에서 시행 중이다.

시는 현재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1.49mg/l 인 수영만 해역 수질을 2019년까지 1.35mg/l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오염물 배출부하량을 하루 1만9774kg에서 1만5718kg으로 4t가량 줄인다. 시는 5년 동안 국·시비 5820억 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확충,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하수 고도처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영만은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전남 광양만과 함께 5대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별관리 해역은 해양환경 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생태계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한다. 시는 2012년부터 오염 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를 벌였고, 이를 근거로 '부산연안 특별관리 해역 제1차(2015~2019년) 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최근 이 계획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아 구

체적인 오염물 저감 계획,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담은 총량관리제 시행을 확정했다.

오염 총량관리제가 시작되면 도시관리계획 등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시행자는 시와 협의를 거쳐 할당받은 배출부하량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오염 총량관리제 운영으로 수영만 해역의 수질 개선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혁범 기자 pearl@kookje.co.kr
(23.1~8.1)cm

부산일보

2015년 09월 18일
10면 (사토)

수영팔도시장은 김팔도 씨 이름에서 유래했다?

"수영팔도시장은 상인 김팔도 씨가 시장 안에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이름 붙여졌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7일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박진명 기획팀장의 말이다. 이 조합은 부산 수영구청과 함께 수영문화마을(가칭)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

도시 재생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수영문화마을 만들기(본보 지난달 20일자 9면 보도)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몇몇만 알던 오래된 마을 이야가 활발히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선 팔도시에서 토산물이 모였다고 해서 팔도시장이라고 부른다는 설도 있지만, 상인 김팔도 씨로부터 파생된 이름이라는 설이 주민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을 얻고 있다.

지금도 일제시대 김 씨가 이곳에 상가 건물을 세웠다는 얘기가 회자된다. 흔히 수영팔도시장으로 부르는 시장의 공식 명칭이 왜 '수영팔도' 상

"팔도시장 이름의 유래는 제일교포 상인 김팔도..."

"인구 1만 8천 명 수영동에 점점 100개 넘는 까닭은?" 수영문화마을 사업 시동길자 곳곳에서 '스토리' 쏟아져

가시장'인지가 설명된다. 지금도 김 씨가 세웠다는 건물이 시장에 남아 있다. 하지만 광복 이후 김 씨의 상가를 정리하고 일본으로 건너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김 씨가 원래 제일교포라는 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수영팔도시장은 조선시대 '좌수영정'(左水營)이라는 이름으로 5일장이 열렸던 지역에 생겼다. 1832년 풍래부 읍지라는 기록물에 따르면 매월 5일부터 5일 간격으로 매달 6번



올해부터 부산 수영구에서 수영문화마을 만들기 시작되면서 설 알려지지 않았던 마을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수영팔도 상가시장 입구 모습. 부산일보 제공

좌수영정이 열렸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시장의 역사가 오래됐지만, 수영팔도시장이라는 이름은 비교적 최근에 붙었다.

박 팀장은 "한양 김팔도 씨로 인해 수영팔도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면

문화마을 이름으로 '수영팔도문화마을'은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 마을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마을 이름 후보로는 수영팔도 문화마을, 수영광복문화마을, 수영성문화마을, 수영말밭문화마을을 등

4개가 있고, 그 외 주민들의 기타 의견을 받는다. 수영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박차를 가하면서 이와에도 재밌는 사실들이 여럿 나왔다.

그 중 하나로 수영동이 전국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점점이 있는 동네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주민이 1만 8천 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지만 현재 운영중인 점점만 100개 상당이 라고.

좌수영성지가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이 제한된 경이 오히려 점점을 변형하게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천연기념물도 지정된 굴솔나무, 푸조나무 등 수령이 500년 가까이 되는 오래된 나무들이 큰 훼손없이 마을을 지키고 있고, 지난 30년간 건물 가격에 큰 변동이 없어 무속인들이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다는 설명도 곁들여진다. 조영미 기자 mso@kookje.co.kr

(30.1~15.4)cm

부산일보

500년간 지신·군신으로 서로 다독이며 수영 지켜온 나무

(地神) (軍神)



나무야 놀자

수영사적공원 푸조나무·곰솔

무속인 찾는 신령스러운 푸조나무
동네 아이들 놀다 떨어지지 안 다쳐
위풍당당한 장군 기개 달은 곰솔
입대할 자네 무사안녕 비는 명소

한 그루의 천연기념물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두 그루가 나란히 있다면? 그것도 서로 다른 종류의 나무라면?

전국적으로 다뤄 드문 현장을 부산 수영사적공원에 가면 마주할 수 있다. 천연기념물 제311호 푸조나무와 천연기념물 제270호 곰솔이 야이다. 두 나무는 서로 30m도 떨어지지 않은 채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무려 500년 간 때로는 서로 경쟁하며,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며 수영을 지키는 주인공들이다.

■ 왜병 물리친 송 씨 할매의 나이—
수영사적공원 남문로 들어가 왼쪽을 보면 수려한 고목 한 그루를 볼 수 있다. 수령 500년 을 자랑하는 천연기념물 제311호 푸조나무다. 이 나무는 마을을 지키주는 수호신이 깃든 지신목(地神木)이다. 임진왜란 당시 자신을 희생하는 왜병을 의연히 물리친 송 씨 할매의 나이가 푸조나무에 깃들여 있다고 한다. 인근에는 '송 씨 할매'라고도 있다.

전미경 수영구 문화해설사는 "푸조나무는 과거 아이들의 놀이터였는데 나무 위에서 떨어지 도 다치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며 "마을 의 안녕을 지켜주는 송 씨 할매의 기운 덕분" 이라고 말했다. 실제 수령 주변에는 100명이 넘는 무속인이 있었고, 이들이 수시로 찾은 정로 푸조나무는 신령스러운 나무였다.

이 나무의 특이한 점은 지표면 1.5m 지점에서 줄기가 두 개로 나뉘게 자란다는 점이다. 북쪽 줄기는 할아버지, 남쪽 줄기는 할머니라 해 '노부부목'으로 불리기도 한다.

전 해설사는 "갈라진 나무가 어찌하면 똑같은 크기로 자란 것도 드물 것"이라며 "두 나무가 자라 하나로 양면 연결되지는 않지만 양면 양면 떨어진 후 양면이 붙어 마치 하나가 되고 있는 아들은 형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푸조나무는 또 사계절 다 나뭇잎이 아름답 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전 해설 사는 "봄이면 연두빛 새순이 갈탄을 자아내며 하고, 여름이면 푸성창 잎사귀가 시원한 그늘 을 만들어주고, 가을이면 붉은 열매가 맺어 이 를 따먹기 위한 세소리가 가득하고, 겨울이면 잔가지까지 완벽하게 드러나 또다른 아름다움 을 선사한다"고 말했다.



	곰솔	푸조나무
수령	400~500년	500년
위치	수영구 수영동 271	
높이	23.6m	18.0m
둘레	4.5m	8.5m
지정 연도	1982년(천연기념물)	

■ 아들 군대 보내 어머니들이 찾았다—
남문 일구에는 또다른 천연기념물인 곰솔 (해솔)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수령은 400~500년으로 추정되며, 거대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에 마치 장군의 기개를 보는 듯하다. 주변에는 수령 100~200년으로 보호수로 지정된 곰솔 5그루가 참모처럼 군락을 이루고 있다.

실제 수영사적공원은 조선시대 경성좌도 수 군영도사 본영(左營)이 있었던 군사적 요충지였다. '수영'이라는 지명도 여기서 나왔다. 좌수영을 수백년 간 지키는 곰솔이 '군신목(軍神木)'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수영 곰솔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들이 찾아와 자신의 무사안녕을 비는 나무로도 유명하다.

수영사적공원은 수영의 '보물'이다. 좌수영 성지와 남문, 25의왕단, 안동목 장군 사당, 최영 장군 사당, 수영민속마을, 수영사적원 등 둘러볼 곳이 많다. 그중에서도 최대 '보물'은 뒤편 푸조나무와 천연기념물 푸조나무와 곰솔이다.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사무처장은 "두 그루의 천연기념물이 400~500년을 서로 경쟁하 듯 버티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식각할 도심 속에서 청량제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지역이슈팀·윤영선·이은정·이정경 기자 isue@bsan.com
© 동영상 부산.com



부산 수영사적공원에 있는 천연기념물 제311호 푸조나무, 풍성한 잎사귀와 그늘이 시민들에게 안락처가 되고 있다. 줄기가 땅 위 1.5m부터 둘로 갈라졌는데 왼쪽은 할아버지 나무, 오른쪽은 할머니 나무로 불린다. 왼쪽의 푸조나무는 지신목(地神木)으로 지정된 푸조나무 기둥이다.

어린이를 위한 생태 편지

남해안 따뜻한 곳서 자라는 푸조나무 넘어지지 않으면 판자 모양 뿌리 발달

푸조나무는 느릅나무과의 상록활엽목으로 성장이 빠르고 남해안의 따뜻한 지역에서 자랍니다. 곰솔이나 뽕나무처럼 바닷가에 인접해 잘 자라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으로 많이 식재됩니다.

그렇다 보니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했는데, 뿌리 근처에 두꺼운 판자를 놓아놓은 것 같은 '판근(板根)'(사진)이라는 판자모양의 뿌리가 발달해 있습니다.

푸조나무는 뽕나무와 비슷해 일반인들은 구분하기 어려워 '개뽕나무'라고도 불리는데요



다. 꽃은 5월에 피며, 수꽃은 가지의 아래쪽에, 암꽃은 가지의 위쪽에 핀다. 열매는 뽕나무보다 붉은 검은 열매가 9~10월에 열린다.

목재는 건축과 가구를 만들거나 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데 특히 재목자루, 도끼자루, 수레바퀴, 절구 등에 귀하게 활용됩니다.

푸조나무의 이름에 대한 유래는 여러 가지나 도감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의 나무'나 '수입자재'와 푸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고민해본다.

김동현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주변 정보



- **나들이 코스**
 - 판악민속마을-수영사적공원-최영 장군 사당
 - 수영민속마을-수영사적공원-경파정 유적지
- **음식점**
 - 대내리대나무수영동 447-183 국수·매점
 - 홍수영민속마을(명지동 603-10) 국수점

공통기차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국제신문

민락매립지 고도제한 완화 연내 어려울듯

내달 13일까지 주민공람 등 통상 2개월 이상 더 걸려 변경안 제출 5개월 늦어진 셈

부산 관내민락수영장 인근 민락매립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본지 지난 8월 18일 지 14면 등 보도)이 마련됐으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 상인들이 애타고 있다. 26일 부산 수영구 등에 따르면 수영구는 관내민락수영장 주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친 뒤 같은 달 중순께 부산시에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시에 제출되면 시는 내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통과 여부를 결정고시 등을 통해 알리게 된다. 이 과정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돼 변경안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영구는 애초 지난 5월 용역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으나, 시가 수영구에 수정 요청을 하면서 심의 신청 자체가 연기됐다. 그 이후 수영구는 지난 8월 시의 요구안을 수렴한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시는 또다시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수영구는 지난 달 말 보완된 변경안을 다시 마련했다. 그러나 행정감사 등의 이유로 주민공람 시기가 늦춰졌고, 결국 최초 계획일보다 5개월 이상 늦게 변경

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지역 상인들은 조속한 변경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락매립지 일대가 고도제한 때문에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고, 상권이 침체했다는 이유에서다. 수변지역발전협의회 서봉연 회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역 상권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경안이 통과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영구가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민락매립지 건축물의 높이를 현행 60m에서 150m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병목 기자 (17.2.10.8주)

국제신문

2015년 10월 09일

04면 (사회)



1등 활거야 2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호안도로 조깅코스에서 열린 제7회 수영구 영·유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23.1*11.0cm)

국제신문

2015년 10월 09일

04면 (종합)

수영 대표적 노른자위, 구청이 산다

부산시 옛 공무원교육원 터 매각 개발여지 많아 여기저기서 눈독 50억에 매입 문화체육단지 조성

부산 수영구 금련산 자락의 옛 공무원교육원 터가 드디어 팔린다. 부산시는 광안동 옛 공무원교육원 본관(지상 3층, 2812㎡)과 주변 대지(8744㎡) 등 총 1만

1556㎡를 수영구에 매각한다고 4일 밝혔다. 추산가격은 50억 원이다.

수영구는 땅을 사들인 뒤 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지어 이곳을 종합문화체육복지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에어로빅실, 체력측정실 등을 갖춘다. 센터 뒤 녹지엔 족구장과 테니스장이 들어선다. 3층짜리 청소년문화의집은 북카페, 다목적실, 상담센터 등으로 구성한다. 수영구는 159억 원(국비 32억 원, 시비 30억 원, 구비 97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곳은 도시철도 2호선 금련산역과 멀지 않은 데다 가용 용지가 넓어 수영구에서 개발 여지가 남은 마지막 땅으로 불린다. 2009년 1월 공무원교육원이 북구 금곡동으로 이전한 후 정차권 자치단체 경찰 등 여기저기서 앓다뿔 '육십'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체육시설이 열악한 수영구는 그동안 이곳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게 숙원이었다. 총선과 지방선거 때면 후보자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단골 공약으로 내놴. 그러나 땅 주인인 시는 이곳에 부산발전연구원을 옮기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또 부산경찰청은 이곳을 2019년 신설하는 수영경찰서 자리로 점찍었다가 '노리는 자'가 많아 뜻을 접었다. 이런 탓에 지역에선 옛 공무원교육원 활용을 놓고 각종 소문이 무성했다.

권혁범 장호정 기자 pearl@kookje.co.kr (23.1*6.3cm)

부산일보

2015년 10월 09일

09면 (사회)

'2천 원의 행복' 불꽃축제 보고 이웃도 돕고

광안리 마을기업 '오렌지바다' 행사

"부산불꽃축제 자릿세요? 2천 원만 내시면 불꽃축제도 보고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어요." 부산 마을기업 '오렌지바다' 남소연 대표의 말이다.

'오렌지바다'는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카페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수공예 관광기념품 가게다. 오는 23~24일 제11회 부산불꽃축제 기간에 불꽃축제와 광안대교를 주제로 그림엽서 만들기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 누구나 2천 원을 내고 엽서를 구입해 '내 맘대로 엽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오렌지바다'는 1층 테라스에 30석을 특별히 마련했다. 엽서 수익금은 전부 수영구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간다.

다만, 행사 당일 혼잡이 우려돼 오후 5시~9시 사이에는 선착순 30명만 입장할 수 있다. 나머지 시간대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다.

오렌지바다는 참가자들이 만든 엽서 중 일부를 뽑아 실제 판매하는 엽서로 제작할 계획이다. 조영미 기자 mia@ (21.6*4.9cm)

국제신문

2015년 10월 09일

04면 (사회)

광안리 바다에 뿌려진 전복 어장의 꿈

먹이·암반 지대 많아 재배 적격 구, 민락어촌계 중요 대량 방류 성공盼 어민-해녀 소득 증대

관객지로 이름 높은 부산 광안리 바다에 전복 어장을 일구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인근 어촌계 주민은 부가 가치가 높은 전복을 길러내기 위해 힘을 모으며 '대박'의 꿈을 부풀었다.

18일 오전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인근 마을어장. 강한 바람에 비가 흩날리는 가운데 어장 쪽 바다를 흐트러는 갈로 바라보는 이는 민락어촌계 장운을 계장이었다. 장 계장은 "어제 뿌린 전복 씨앗들이 잘 자리 잡고 있는지, 바닷속을 깨물어 볼 재주는 없지만 마음으로 증명하고 있다"며 미소지었다.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장 계장이 굽어 보던 일대 바다에는 지난 17일 약 6만 5000마리의 전복이 뿌려졌다. 이는 해



부산 수영구 직원들이 광안리 앞바다에 전복 종묘를 뿌리고 있다. 수영구 제공

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자율관리업역식 지원사업의 하나로, 이날 광안리 전복 밭의 밑거름이 될 전복 종묘를 뿌리는

데는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수영구와 어촌계는 4.5cm 길이의 전복이 2년 정도 지나면 수확할 수 있는 크기(7cm)까지 자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치 등 단순한 불고기가 아닌 조개. 그것도 고급종인 전복을 길러보자는 아이디어는 해녀들이 냈다. 매일 물결이 미 광안리 앞바다를 훑고 다니는 해녀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를 자연산 전복을 어망에 주워담으며 이 바다가 전복을 기르기에 알맞은 환경을 지녔다는 걸 깨달았다. 앞대 암반 지대는 전복이 붙어 자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다 태풍이라 도 오면 해면을 두텁게는 풍부한 해초는 전복의 좋은 먹이가 된다. 기상관과 서구 등 이웃 어촌계에서 이미 전복 재배를 시도해 훌륭한 수입을 올린다는 사실은 민락어촌계가 전복 재배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

장 계장은 "전복은 해산물 중에서 가장 바싸게 거래된다. 종자가 잘 자리주

면 어촌계 주민의 삶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복이 자라기 알맞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영구와 민락어촌계는 지난해 조개류를 잡아먹는 어장 일대 불가사리 제거했다. 해초를 먹여 살리는 생태계는 해녀들이 물결하는 틈틈이 수확하고 있다.

구와 민락어촌계 주민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미처 자라지 않은 전복을 스쿠버 다이빙 등 다른 이들이 몰래 가져가는 일이다. 표지판을 세워 일 같은 행동을 견제하는 내용을 명기할 계획이지만 제재에 붙은 전복은 쉬운 표적이 아니다. 구 관계자는 "종묘를 출치기 전에는 밤에서 기르는 작별을 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죄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min87@kookje.co.kr (23.1*13.4cm)

국제신문

사랑방에 모인 터줏대감·청년예술가, 문화유산에 상상력 입히다

현장에서 들려주는
문화기획의 세계

<5> '수영성 문화마을 프로젝트' 분무기

부산에 수영궁이 있어도 수영동이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다. 팔도시장은 알어도 수영사적공원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장미동, 선영, 민락, 관음동으로 둘러싸인 수영동 일대는 30년 넘게 문화제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주변 높은 건물 사이에서 수영동만 특이하게 옛 건물들을 새로 짓는 것도 어려워 대대로 남은 건물이 많은 데다 수영구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유형문화재인 남포에 있는 수영사적공원에 처음 갔을 때 짙은 노란빛이 어우러진 도성에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대로 가는 문지름이었는데 그 속에 어르신들이 바둑판을 치고 있었다. 천연기념물인 아래두루포구와 유점도 있는 공설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사적들 내용을 읽고 나서는 더욱이 이 매력적인 장소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게다가 이곳에서는 수영유산을 포함한 4개 무형문화재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영성을 비롯한 다양한 사적과 4개 무형문화재, 그리고 천연기념물 나무 등 다양한 문화적 유산이 수영동처럼 밀집된 지역은 흔치 않다. 게다가 수영이 재현되고 있어 요즘 자주 회자되는 '옛리페어샵' 등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다. 부산은 급속한 근대화를 경험하고서도 근대의 건축물 등 유산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해 아쉬운데 수영동 사적과 스토리는 몇 백년을 넘나든다.

■주민과 민다는 문화사랑방에 집중
처음에는 지역에 대한 조사 때문에 수영동을 만났지만, 문화기획자로서 계속 논의가 깊어졌다. 필자가 속한 부산의 플랜비문화예술공동체가 지금의 '수영성 문화마을'을 사업 준비를 할 때 경서동사 수영동 인근으로 이사한 적이 있다. 해당 내실과 기획을 지어야 하는 고민이 더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

흔히 마을만들기 등에서 기존의 지역 커뮤니티 위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수영동은 다르다. 그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정립



자녀를 수영성 문화마을 프로젝트 중 하나로 부산 수영사적공원 등지에서 열린 제2회 수영성 난장 행사에서 시민들이 공연과 놀이를 즐기고 있다.

역사적 가치를 개발제한 구역에 발전시킨 부산 수영동 일대 활력 되살릴 동네콘텐츠 개발

기존 지역 커뮤니티로는 한계 젊은 예술인 동아리 발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 발굴

사적공원상 두 차례 문화난장 스토리텔링 공연·강터 선택 마을 잡자·박물관도 만들기로

하는 과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수영성에서 문화마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한 것이 주민들과 커뮤니티인 '문화사랑방'이다.

지역의 직능도사관, 민속보존회의 무형문화재 어르신, 인근에서 전통무예교육원을 운영하는 분, 자체로 문화예술로 일을 꾸리는 분, 문화활동을 하는 청년들까지 20명 내외가 한 번 동안 꾸준히 만남을 갖고 있다. 반면에 다양한 사람들과 참여자들은 관심과 특기에 따라 '노리개' '타령', '무조와 굴술' '잡자, 마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마을박물관' 프로그램 등으로 연결되며 함께 사업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고 있다.

기존에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던 분들의 에너지와 인연이 있는 청년을 찾아 문화사랑방에 결합하는 노력도 줄곧 하고 있다. 몇 개월 과정을 통해 수영동에 작업실을 둔 예술가, 수영동에서 꼭 살아야 하는 커리어 지킴이를 만났다. 인근 청년주거 공동체 등도 앞으로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주체가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장을 지난 청년을 포함해 '커뮤니티'를 새롭게 구성하는 노력도 중요한 것은 역사와 전통이 강하고 고령화된 지역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지역 커뮤니티로는 한계가 있어 그때마다 도시에 공공체는 원래 있던 개념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교류와 상상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을만들기 '수영성 난장' 두 번 개최
올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수영사적공원에서 '수영성 난장'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지역의 매력을 알리면서 주민들이 즐기는 축제다. 첫 번째 난장은 극단 고깃가부두대의 마당극, 지역의 스토리로 판소리 사설을 만든 김창하의 공연, 시민 참여 장터로 펼쳐졌다. 이렇게 '연' '동작' '요소'를 포함한 이유는 수영동이 지난 장점이 스토리와 어떤 식으로든 상호작용을 해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열린 제2회 수영성 난장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놀이를 즐기고 있다.

또 행사장에서 무대이자 소문으로 알려진 프로그램에서 수영동 내 작은 도서관이 책수업을 운영하고, 문화사랑방 참여자들이 국문해설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오랫동안 수영동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조직에서 영감을 얻은 행동을 장려하는 선 보였다.

제1회 수영성 난장에 선보인 '타로수령'을 작정한 두 번째 난장에서는 표준



백영진 제공

타로라는 타로존을 만들었다. 공간에서 작업실을 둔 예술가도 타로존에 참여했다. 수영동 일대 100개 가량이 되는 점집이 있다. 사람의 심리를 어루만지는 무속 영역도 이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자 장에 적합한 아이디어였다. 기획의 대상이기도 한 천연기념물 나무, 여러 개 사당 등을 고려해 타로존이라는 이색 프로그램 마을 수호신인 푸조와 번영에서 진행했다. 70, 80년대 가장 번성했다는 수영동 역사를 고려해 사적공원 놀이마당은 고고장으로 꾸몄다. 추억의 DJ와 로큰롤, 옛날 힙합 공연도 마을을 더했다. 부녀회가 음식과 커피를 문화해설사 분들이 두 가지 코스를 진행했다.

수영성 난장에서 한 축은 마을에서 줄곧 활동해온 분들과 문화사랑방에 참여하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또 하나의 축은 여러 예술가들이 그들의 감각으로 마을을 만나고 기록하는 것이다. 다른 세대, 다른 분, 지역주민의 시선을 끌었던 사람들이 뒤쫓아다니는 이야기는 새롭게 조명받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주민으로 오래 살면서 지역을 속속들이 아는 분들도, 주민이 아니어도 새로운 감각을 지닌 다양한 외부자의 시선도 모두 지역의 자원이 될 수 있다.

■마을책자와 박물관, 탐방까지
마을을 만나는 방식은 다양하다. 난장

처럼 즐기는 축제도 있지만, 마을에 대한 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마을책자를 발간하는 마을박물관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이달까지 6개월에 걸친 조사가 끝났다. 내년 초 마을 책자를 내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책물을 꾸민다.

또 마을 주민과 인근의 활동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통해 '무조와 굴술'이라는 잡지의 창간호를 기획했다. 이 잡지는 이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이야기나 단편을 만들어 제작을 이어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잡지뿐 아니라 수영성 난장의 마당 운영, 탐방, 문화해설사 분들이 두 가지 코스를 진행했다.

수영성 마을 프로젝트 같은 '커뮤니티 기획'을 하는 최종 목표는 지역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이 목표가 달성되면 기획자의 역할은 거의 소멸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기획자는 그것이 그 소명의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고 그 역할을 커뮤니티의 힘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하나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 마을을 공동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마을만들기다. 도자체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백영진 수영성 마을 프로젝트 문화기획팀장 (010-4111-1111)

국제신문

정부, 동래읍성·광안리어방 '2016년 유망축제' 지정

동래읍성축제는 3년 연속
관광진흥기금·홍보 등 혜택

동래읍성역사축제와 광안리어방축제가 정부가 선정하는 '2016년 문화관광축제'에 뽑혔다. 동래구와 수영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유망축제'에 동래읍성역사축제가 3년 연속으로,

광안리어방축제는 처음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축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고 한국관광공사를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도 받게 됐다. 반면 첫 진입을 노렸던 낙동강구포나루축제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문체부는 지난 24일 각 시도에서 추천한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선정위원회와 현장평가를 통해 총 43개의 문화

관광축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이들 축제를 대상으로 등급(대표·최우수·우수·유망)에 따라 총 60억 원의 기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21회를 맞은 동래읍성역사축제는 이 지역만의 역사와 전통으로 차별화한 창의적·체험형 프로그램 운영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안리어방축제는 어민과 수군이 함께 고깃잡이를 하

는 '어방'이라는 주제의 특이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체부는 축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대표·최우수·우수축제의 지원 기간 한도(일몰제)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유망축제의 일몰제는 폐지했다. 대표축제에는 김제지평선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자라섬국제제스티비날이 선정됐다. 박효길 김민준 기자 (231-66) cm

부산일보



광안대교에도 Pray for Paris 16일 오후 부산 광안대교에 파리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파리의 술집을 부산시민과 함께, Pray for Paris 문구와 프랑스 국기의 3색인 파란색, 흰색, 빨간색의 조명이 점등됐다. (17.9.11.5cm)

국제신문

해수욕장 여름한철 옛말, 사계절 북적인다

해운대구 대항·트라·빛축제 인기 해변 아이스링크 연중 운영 검토
광안리는 해변 테라스 영업 허용

부산 해수욕장이 사계절 관광지로 변신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백사장 위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했고, 광안리해수욕장은 테라스를 관광상품으로 내놓는다.

해운대구는 지난 주말 공식 개장한 '해운대비치 국제 아이스링크장' 스케이트장에 12.13일 어린이들 1700명이 다녀갔다고 17일 밝혔다. 광안리에도 200명 이상이 꾸준히 스케이트장을 찾는다. 야외테라스(광안리) 30m 구역도 19일 오후 해운대 스케이트장 개장을 축하하

는 특별 이벤트를 열고 첫 손님들을 맞는다. 전국초등학교가 겨울방학에 몰입하는 다음 주에 이용객이 훨씬 더 늘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자극받은 구는 스케이트장을 사계절 가동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빙판 위에 차양을 설치해 햇볕을 차단하면 혹서기 한두 달을 제외하고 사계절 스케이트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산기 해운대구정장은 "사립자 대약 1.1km 구간에 자리한 22여 개 업소가 육의 시설인 테라스를 두고 손님을 맞도록 허용했다."

이벤트광장에 조성된 높이 16m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구남로 일원의 '해운대 빛축제' 조명도 겨울밤 해운대의 분위기를

위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스케이트장과 20m 떨어진 부산아쿠아리움에서는 주말과 휴일마다 신대 복장의 잠수부가 어색 공연을 벌여 등심을 사로잡는다. 수영구는 광안대교가 가로놓인 밤바다 풍경을 생생하게 느끼도록 육의 테라스를 관광상품으로 만든다. 구는 이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별고시(이하 특별고시)를 제정해 공포했다. 특별고시는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약 1.1km 구간에 자리한 22여 개 업소가 육의 시설인 테라스를 두고 손님을 맞도록 허용했다.

이들 가게 가운데 카페 맥주점 등 38개 업소는 이미 테라스를 두고 영업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불법이어서 민원

이 생기면 업소노출금지 등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다. 구는 광안리해수욕장 밤바다 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테라스가 관광역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행정규제 개혁의 하나로 특별고시를 제정했다. 하지만 테라스에 직접 조리기구를 설치하거나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 앞 노상까지 두고 손님들을 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테라스 영업은 불법이었지만 야간 육의 시설에 매력을 느낀 방문객이 많았다"며 "불법 영업으로 분류된 탓에 다소 소극적이던 업주들이 시설 개선에 나서면 더 많은 방문객이 광안리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17.9.11.5cm)

중앙일보

차 없는 광안대교에서 새해 첫 해돋이 어때요

부산·울산·경남 곳곳서 축제
간절골 소원풍선 날리기 행사

2016년 병신년(丙申年) 첫 해를 보며 액운을 털어내고 소망을 빌어보는 건 어떨까. 부산·울산·경남에서 다양한 새해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부산시는 31일 오후 11시부터 용두산 공원에서 음악제와 불꽃놀이 등으로 송년행사를 연다. 1월 0시에는 희망·사랑·평화를 상징하는 시민의 종 타종식을 한다.

1월 오전 6시30분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축하공연, 헬

기 축하비행, 바다수영 같은 행사가 마련된다. 이날 광안대교에서는 해맞이가 가능하다. 광안대교 상층 보행로가 개방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광안대교 상부층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

울산 유주군은 31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서생면 간절골에서 해맞이 행사를 연다. 간절골엔 오전 7시31분19초에 해가 뜬다. 전야제 행사로 새해 카운트다운과 불꽃놀이, 해맞이 행사로 기원무 공연, 소망풍선 날리기 등이 진행된다. 유주군은 참석자 1만 명에게 떡국을 무료로 나눠준다.

1월 오전 6시30분부터 울산 대왕암공원

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에선 길놀이와 함성 지르기, 소원풍선 날리기, 희망게시판 적기, 소원엽서 쓰기 등을 할 수 있다.

경남 창원시의 무학산 학봉 나들마당, 구산면 봉하산, 주남저수지, 천주산, 만남공원, 진해루, 봉영의 이순신공원과 육지도 새해맞이 기념 해돋이 공연에서 해맞이를 할 수 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마복산 정상에서 해맞이를 할 수 있게 케이블카를 평소보다 3시간 30분 앞당긴 오전 6시부터 운영한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평소보다 1시간 빠른 오전 3시부터 천왕봉 등산로를 개방한다.

차성은유명 기자

chazz@joongang.co.kr

(17.9.8.3cm)

부산일보

2015년 10월 05일
13면 (사회)

‘수영성난장’ 축제
주민들과 즐겨요!

저개발 문화재 지역으로 기억되는 ‘주목받지 못한 마을’ 수영동에서 첫 ‘난장’이 펼쳐진다.

플랜비문화협동예술조합은 10일 오후 1시~오후 6시 부산수영구 수영동 수영사적공원에서 ‘수영성난장’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수영성난장’은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문화마을 사업으로 선정된 수영문화마을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첫 번째 마을 축제다.

이날을 시작으로 ‘수영성난장’은 동절기를 제외하고 매달 한 차례씩 열리고 2017년까지 20회 개최될 예정이다.

첫 난장 프로그램은 돗자리장터(마켓), 수레수레마수레(이동구조물 프로그램), 푸조한접(공연), 곰솔놀이터(참여 프로그램)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돗자리 위에 깔동쑤이나 장난감, 수공예품을 40~50점이 판매하는 돗자리장터가 열린다. 또 난장이 열리는 사적공원 일대를 특별 제작한 수레가 다니면서 공연음악다방, 움직이는 책방, 이야기 수집수레, 먹자 수레, 운명의 타로수레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앞으로 수레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활용, 다양하게 변용될 예정이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곰솔놀이터가 제격이다. 국궁쏘기 체험, 곰솔나무 아래 소망리본 달기, 종이봉투로 탈 만들기, 수영야류 포토존, 버블슈터 트램블린 등 참여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흥겨운 공연이 빠질 리 없다. 푸조나무의 이름을 딴 ‘푸조한접’이라는 공연에서 디제잉, 동요와 트로트 메들리, 댄스를 즐길 수 있다. 또 이날 극단 고춧가루무대가 마당극 ‘심청’으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수영동은 30년 넘게 문화재 보존 구역으로 지정, 개발이 제한돼 무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데도 주목받지 못한 마을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조영미 기자 mia3@

(5.9*32.3cm)

2016 수영구청백서

- 편 집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 발 행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기획감사실
우) 613-702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2동 148-15)
전화 : 051) 610-4015
팩스 : 051) 610-4019
홈페이지 : <http://www.suyeong.go.kr>
 - 발행일 : 2016년 6월
 - 인 쇄 : 애드코리아 (051)759-6773~4
-